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사람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가 비어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창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33호 2013년 5월 18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교회가 영적 고향 되면 젊은 세대 돌아온다!

### 바나리서치, 교회 등진 밀레니엄세대 3가지 유형과 교회공동체 대책 제시

미국 교회 교인 숫자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작년부터 통계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미국 교회 신자 감소에는 바로 젊은 세대들의 이탈 현상이 주범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증가(rise of the Nones)”라고 정의했다. 즉 신앙을 갖지 않았거나 어떠한 신앙 체계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퓨리서치 설문조사에서도 이들은 미국 인구 중 20%에 육박할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난 5년 동안에만 거의 5% 이상이나 가파르게 수직상승하고 있을 정도이다. 겔럽이나 UC버클리/듀크

대학 공동설문에서도, 현재 미국 내에서의 종교 인구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반증할 정도로, 젊은 세대 즉 밀레니엄(18-29세)들이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바나리서치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를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해 교회공동체가 이들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접착점을 제공하고 있다(Three Spiritual Journeys of Millennials).

#### 1. 유목민들(Nomads)

밀레니엄 세대 중 가장 공통적인 영적 방향기를 보내고 있는 층은 바로 ‘유목민’들이다. 이들은 18-29세 사이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미 교회공동체를 등진 채로 아직도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복음주의나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이라며 자신을 특정 교단이나 교파에 소속돼 있다고 하지만 자신을 꼭 넓게 크리스천이라고 믿는다. 이들 중에 43%는 교회는 다니지만 반드시 진교 즉 크리스천들과 교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여긴다. 그리고 23%는 교회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관여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이 적응하기에 어렵다고 토로한다.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교회가 영적 고향이 되어야 한다.

저희 납득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바로 교회공동체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이처럼 이들을 세상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19%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더 이상 기독교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바로 이 특성이 탕자들의 전형적인 고백이다.

신과 봉사 그리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완전히 접촉점을 상실한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상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21% 정도의 기독교 배경을 가진 밀레니엄들이,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성장시켜 주기에는 너무 어

렵다고 고백한다. 한마디로, 제자도의 삶을 살고 싶지만 교회가 이를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교회 안에서보다는 자신들의 가정이나 직장 즉 일터에서 더욱 더 크리스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확대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결국 세상 영역에서도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만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지침이나 실제적인 지혜를 알고 있지 않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바나리서치의 데이빗 킨너맨은 낙관적이다. 그 이유는 바로 밀레니엄들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향과도 같은 기독교 신앙을 역으로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 느꼈던 신앙에 대한 향수나 감정을 현재 맛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채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공동체가 이들을 위해 신신하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고향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충분히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2. 탕자들(Prodigals)

탕자들은 완전히 자신들의 신앙을 저버린 젊은 세대이다. 이들은 과거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기독교 배경을 가진 밀레니엄들 중에서 21%는 기독교 신앙이 도

#### 3. 유배자들(Exiles)

밀레니엄 중에서 기독교 신앙과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교회공동체에 남아 있는 부류는 바로 “유배자들”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현



2면 “만족은 오직 제자의 삶에만 있다!”



3면 목회자, 신뢰형성 통해 리더 된다!



7면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연인 황의영 목사(SBM 대표)



13면 위그노 신앙 답사기(1) 한평우 목사(로마한인교회)

가격: \$30(미국내 우송료 포함)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준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 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케 함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종준, 장영준, 권태진, 황의영, 이영섭, 김기원, 김승천, 이만형, 김해천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 제1회 오순절 영성회복 학교 (3박 4일)

목회가 힘들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해답입니다.

목사는 \* 무조건 충만해야 한다.  
목사는 \* 무조건 건강해야 한다.



배영준 목사는 20년 동안 성령사역, 내적 치유 사역을 인도했으며 미주 목회자들에게 기름부음과 사역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CA의 살롬 기도원을 임대하여 영성훈련과 전인치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 \* 목회자의 현실 \*

- 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등하다가 신학교에 입학
- 2) 오랜 기간 열심히 신학과 목회 이론을 배우고 부푼 꿈을 안고 졸업
- 3)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학문으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함을 발견
- 4) 다양한 세미나에서 프로그램을 배워서 적용하지만 별 효과가 없음
- 5)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세월만 보낸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처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실력 대신 능력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프로그램의 인도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자신과 성도와 교회가 살아납니다.

영성회복 3박 4일은 보편적인 세미나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성령님의 임재 경험, 은사의 나타남, 수도원 영성, 기름 부음, 내적치유, 영적성교와 같은 목회에 필수적인 사역을 배웁니다.(www.0675.net)

건강회복 3박 4일은 기도와 음식으로 질병(성인병)을 치유하여 영육을 강건하게 합니다.

### 다른 세미나와 차이

- 목회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갈등, 무분별한 식습관=고혈압, 당뇨, 심장병에 걸리게 합니다. 3박4일 동안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주스만 섭취해서 몸의 독소를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 합니다.
- 목회와 사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성 설교, 치유사역, 성령님의 임재기도, 전인치유와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효과적인 집회와 내적치유를 위해 소수의 인원(20명 이하)으로 진행합니다.



www.kcmusa.org 배너 참고  
www.0675.net

배영준 목사 부흥회를 원하시면 설교CD를 보내드립니다.

- 일 자: 6월 10일-13일(월-목) 3박 4일. (월 4시-목 2시)
- 대 상: 목회자, 사모, 선교사, 전도사, 교회 리더
- 인 원: 20명 선착순 (사전예약 필수)
- 숙박포함: 150불(선교사는 100불)

- 장소: 9856 Sunland Blvd, Sunland CA 91040  
살롬전원교회  
(213)222-7723, (213)800-1366(사전 등록 필수)  
LA 공항에서 1시간, Burbank 공항 10분 거리



# 시론

## 확대가족을 만듭시다!



원중훈 목사 (시카고 그리스교회)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한미 양국의 캘린더를 따라 사는 한인 교회들도 어린이날과 어머니날 혹은 아버지날 뿐 아니라 듣기에 따라 다소 생소한 부부의 날까지 있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때가 되니 사회 및 교회가 앞 다투어 가족과 가정을 생각하는 행사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으며, 이것을 놓칠 새라 관련사업체에서 선전하는 각종 가정의 달 특수 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하지만 단회적 이벤트 및 상업성 행사가 가정의 달이 추구하는 본질을 흐리게 할까봐 매우 조심스럽다.

'가정'이란 가족이라는 혈연관계 사람들의 생활공동체 혹은 그 장소 의미를 의미하며,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생겨난 친족관계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가정과 가족의 연결고리는 혈연이다. 하지만 가족 개념이 변해왔다. 산업화 과정을 통한 농촌이탈 및 도시유입 현상, 아파트 같은 도시형 주거형태 변화가 자연스레 조부모 중심의 3-4대 대가족을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대체시켰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범주에서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시골에 계신 삼촌과 고모처럼 매우 가까운 친척일 뿐이다. 거기에다가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 무자녀가족, 이른바 딥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부부들이 제법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싱글로 사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앞으로는 가정의 달이라 칭하는 것이 무색할 때가 올 것 같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두 조부모와 함께 살게 만들고 모두 아이를 낳자고 하소연하며, 모두 결혼하라고 설득하지는 않는다.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한 방향으로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확대가족을 만들자는 것이다. 가족의 개념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오늘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의미의 확대가족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과 무관치 않으며, 특히 소외되어 있거나 외로운 사람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던 바른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는 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외로운 분들에게 단회적인 이벤트성 행사로도 적지 않은 기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사는 행사 뒤에 홀로 남는 외로움을 더해줄 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시적인 관심도 필요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겠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면 된다. 소도시의 유학생들이나 양로원의 무연고 노인들을 가족으로 삼을 수 있다. 지체가 자유스럽지 못한 이웃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다. 작은 일로 시작하면 된다. 마음 여는 것이 시작이요, 이해하고 받아주며 함께 있어주고 같이 밥을 먹는 일로 깊어질 수 있다.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 담긴 사랑은 주는 사람 편에서 아무리 작아도 받는 자들에게는 큰 법이다. 기대감이 없던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며, 기대감이 없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대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는 물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의 가족으로 대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들 역시 '신앙'으로 연결된 우리의 확대가족이 될 수 있다.

한국 달력의 5월에는 의미 있는 가족관련 날이 하나 더 있다. 입양의 날(11일)이다.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을 내 가족으로 삼는 일이 입양이다. 이러한 법적입양도 소중하지만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마음과 신앙으로 누군가를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입양이라 할 수 있겠다. 수년전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난 독거노인의 일기장에 반복적으로 적혀있었던 글귀가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들의 가슴을 두드린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 "만족은 오직 제자의 삶에만 있다!"

## CT, 40대 초반 미국목회자들의 열풍 "급진적 제자도" 소개(상)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년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다. 이제 예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라!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은 오직 제자의 삶에만 있다."

현재 미국교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헌신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급진적 제자도"운동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 운동은 카일 아이들먼, 데이비드 플랫, 프랜시스 쉐 목사들로, 이들은 젊은 목회자답게 유쾌하고 활달하며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적 열정과 역량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

크리스천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소위 "급진적 제자도"에 열광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말하는 이 급진적인 제자도만이 이 시대를 위한 유일한 복음은 아니라며 균형 잡힌 성경적 시각을 가질 것을 제안하고 있다(Here Come the Radicals! : David Platt, Francis Chan, Shane Claiborne, and now Kyle Idleman are dominating the Christian best-seller lists by attacking our comfortable Christianity. But is 'radical faith' enough?)



앨라배마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교회인 브룩힐즈교회(Church at Brook Hills)를 빈민촌처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2010년 브룩힐즈교회는 버밍엄 전역에서 온갖 잡동사니를 긁어모아 우그리진 금속판과 나무토막, 찢어진 방수포 등으로 무대를 꾸몄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그' 교회에 석 달 전 데이비드 플랫 담임목사가 '인도를 섬기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컴패션인터내셔널이 인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 구호프로

빈민 구역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이다.

한 교인에 따르면 브룩힐즈교회는 이 사건으로 인해 독특한 평판을 누리게 됐다. "아직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인들이 버밍엄의 빈민굴로 자진해서 이사회 들어가는 '그' 교회에 석 달 전 데이비드 플랫 담임목사가 '인도를 섬기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더라. 컴패션인터내셔널이 인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 구호프로

끌어들이는 스타일이다. 한순간 성탄절 아침 기대에 찬 얼굴로 트리 앞에 서있는 꼬마 같은 함박웃음을 짓다가도, 다음 순간 단호한 결의가 담긴 절절한 목소리로 힘차게 호소한다. 교인들을 향해 "자, 브룩힐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도를 섬기자"라고 말할 때, 플랫은 마지막 구절에서 갈라진 목소리로 숨을 몰아쉰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발언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흑암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플랫의 날선 비판은 교인석에 앉아있는 교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교회의 재정 문제와 성장 전략에 대한 플랫의 견해가 궁극하다면 그의 다음 책 "래디컬 투게더"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 우리 교회의 관심사를 살펴보면, 여전히 가난한 가족이나 버려진 고아들을 돕는 일보다 편의위주 프로그램과 대형 주차장을 더 중시하고 있는

## 엄격한 신앙태도... '도덕주의적이고 치유적인 이신론' 경계 '믿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급진적 기독교운동 유행

그램을 1년 동안 후원하지는 의미 없다.

교회 전체가 인도로 떠날 수는 없으니, 무대를 가득 채운 쓰레기를 보면서 인도의 빈곤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느껴보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말 그대로 '잘 꾸며진' 무대를 통해 플랫 목사와 브룩힐즈교회는 52만5천 달러의 컴패션 후원금을 모금했고 여러 가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교인 전체가 1년 동안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체를 살살이 읽고,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버밍엄을 벗어나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복음적인 지역 교회에 헌신하게 된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래디컬 실험'(Radical Experiment)이 별로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급진적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제자도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이 실험은 교회 안팎에서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가족과 독신자 등 40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버밍엄에서 가장 위험한

년 넘게 뉴욕타임스 삶의 지혜 부문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래디컬'은 3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기독교서점 협회(CBA)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있다.

플랫 목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굉장히 절다는 점이다. 2006년 27세의 나이로 브룩힐즈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을 때 그는 미국 대형 교회의 최연소 담임목사였다. 너무 절다보니 그가 제시하는 대담한 메시지와 확신에 찬 태도가 다소 어색해 보이기도 한다. 플랫의 설교에는 일부 목사들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현란한 화술이 없다. 역양의 고지가 살아있는 남부 특유의 느린 말투와 뭔가 화두를 제시한 다음 잠시 망설이다가 급하게 다음 문장들을 이어가는 화법 등으로 인해, 플랫의 설교는 잔잔한 강물 위를 떠내려가다 이따금 급류를 만나 휩쓸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외선의 거의 없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플랫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의 급진적인 예수...21세기 미국 문화의 익숙하고 편안한 예수"로 바뀌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신분상승, 자존감, 자기만족" 같은 자기중심적인 문화와 "개인주의, 물질주의, 보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의 굶주린 빈민과 버려진 아이들,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

것 같다."

복음의 가르침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자 주장하는 사람은 플랫만이 아니다. 이미 6년 전 세인 클레어본은 미국 기독교에 '평범한 래디컬'이라는 새로운 어휘를 도입했다. 그의 저서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가 제시하는 비판적 메시지는 플랫의 "래디컬"과 비슷하지만, 미국의 국수주의에 대한 보다 분명한 반대와 폭력에 대한 평화주의적 비판 등 정치적 관점이 추가되었다.

(3면으로 계속)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b>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66-4400(대표) (718)866-4424(편집국) Fax:(718)86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Midwest Summer Special Global Leadership Seminar

June 13, 2013, 9:00 am- 5:00 pm, June 14, 9:00 am- 12:00 pm

**Rev. Shemchenko**  
Russia Christian Leader  
Russia Christianity today and Tomorrow  
"러시아 기독교의 오늘과 미래"

**Dr. Bob Fu**  
President of China Aid, IFPP Director  
"Christianity in China and Leadership"  
중국기독교 리더  
"중국의 기독교 리더십"

**Bill Federer** IEC President,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American Minute  
"Christianity in America and Leadership"  
"미국의 기독교 리더십"

**Dr. Kum Y. Kim**,  
President of Midwest Alumni  
"Korean Christianity Today and Tomorrow"  
Midwest University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의 미래"

**Dr. James Song**,  
President of Midwest University  
"Global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총장  
"글로벌리더십 개발"

###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Seminar

Prof. Sung Joon Kim (St. Louis University Ph.D Candidate)  
Blended Courses - CC 502, CC523  
ICA Certificate  
June 10-14, 2013

**27th Anniversary Graduation Ceremony**  
June 14, 2013. 3:00 pm

**27th Anniversary Midwest Summer Concert**  
June 14, 2013. 7:00 pm

**Register Now ! e-mail to 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usa@midwest.edu  
(636) 327-4645, St. Louis, Missouri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리더십 박사과정 입학문의 손동원 교수 covenant@unitel.co.kr  
세계 각국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Leadership

## 목회자, 신뢰형성 통해 리더 된다!

### 리더십저널, 오브리 맥퍼스 목사의 성경적 리더형성원리 소개

목회자가 처음 어느 교회로 부임했을 경우, 모든 교인들이 그에게 신뢰를 보내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처음에 그는 그저 한 명의 "집례자"에 불과하다. 예배, 의전, 결혼식과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다가 "집례자"는 "목사"가 되어간다. 교인들이 그에게 고인을 말하고 싶어 하고 그의 위로를 듣고 싶어 하고 좋은 일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목사"는 "리더"가 된다. 교인들은 교회 일에 대해서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며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저절로 시간이 지나가면 리더십이 목사로, 목사가 리더로 승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발전은 "신뢰 형성"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목회자가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안타깝게도 모든 교인들이 목회자를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목회자들이 각 교회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회자는 교인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 평신도의 입장에서 볼 때,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큰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는 일이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혹시 그 신뢰할 상대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또 자기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 대상의 통제권 아래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미 신뢰가 가지는 위험성을 알고 있고,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내게 저들의 신뢰를 얻을만한 자질이나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서는 단기간에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평신도들은 자기 교회 목회자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정이나 설득력이 느껴지지 않거나, 각 사람을 돌보는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 결코 그를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격을 함양하거나 능력을 갖추는 것, 열정을 소 유하는 것 등은 단기간에 간단하게 이뤄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개선이 쉽지 않다.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목회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은 재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열거된 문제가 내게 있다면, 뼈를 깎는 회개의 심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그런데 가끔은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 때문에 목회자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목회자가 교회 앞에서 선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거나,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과만 의논하여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는 일이 잦으면 목회자가 신뢰를 얻기 어렵다. 만약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이는 신뢰형성을 막는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된다.

만약 이런 문제로 교인들과의 신뢰관계에 금이 갔다고 느껴진다면 일단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죄하며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이후에 이미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해간다면 신뢰가 한 번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이런 당연한 수순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작은 실수 때문에 생긴 신뢰의 균열이 매꿔지지 않고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있을 때에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라! 절대 타협하지 말라!

### 소그룹닷컴, 교회내 소그룹 모임이 꼭 지켜야 할 성경묵상 중요성 소개

소그룹 멤버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모임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게 하며, 또한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비취진 자신들의 모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야만 한다. 또한 소그룹 리더는 멤버들이 주중에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소그룹 성경공부를 위해 미리 준비해오도록 독려해야 한다.

교회 소그룹에서 성경이 다루지는 것은 지나치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소그룹에서 성경을 성실하고 주의 깊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치 소그룹을 시작의식, "개회선언"과 같이 성경을 한 구절 읽거나, 정해진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 전부인 경우도 있고, 예배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다루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멤버들의 신변잡기, 경제문제, 교육문제, 시사문제, 건강문제 이야기로 채워지기가 다반사다.

이렇게 소그룹에서 성경이 제대로 다루지지 않고 각자 멤버들의 관심사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면, 일단 그 모임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없고 모였을 때 짧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각자가 관심사를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는 멤버들에게 남는 것은 허무한 느낌뿐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왜 이 모임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나타날 것이며 실제로 영적 성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월로우크리교회(2003년부터 1,000여 개의 교회를 전문적인 설문조사 도구 사용에 조사한 결과 보고서 "MOVE"를 통해 "모든 개인적인 신앙훈련 중에서도 '성경묵상'이 다른 어떤 신앙훈련보



다도 영적 성장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어떤 신앙훈련보다도 이 요소가 두 배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성도들에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조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것을 당위의 문제로 가르쳐야 한다. 그것을 고집스럽게 요구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는 멤버들에게 남는 것은 허무한 느낌뿐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왜 이 모임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나타날 것이며 실제로 영적 성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소그룹 리더는 결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소그룹 시간을 보내려는 유혹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유혹 중 가장 많은 것은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분한 친구시간을 갖기 위해 한 번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성경공부를 꼭 해야 한다면 짧고 간단하게 끝내고 다른 시간을 가져

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 속한 소그룹들이 그 시간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며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모두가 모인 예배, 집회 시간에는 소그룹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적이 또 하나의 친구단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유념해야 한다. 성도의 친구는 성경 말씀 아래에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타협하지 말고 성경을 펼치고 이번에 다룰 본문을 다루어 보자. 성경을 공부하고, 거기에 자기 삶을 비취보는 시간이야말로 신변잡기와 농담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없는 참된 친구를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2면에서 계속)

최근에는 캔터키 주 루이빌 사우스이스트크리스천교회(Southeast Christian Church)의 교육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저서를 통해 자신은 제자의 길을 "최대한 매력적이고 편안하고 편리한" 길로 포장하려 노력했다고 고백했다. 프랜시스 찬 역시 이런 흐름에 합류해 "크레이지 러브"를 출간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주장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대형 교회 중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 주 엘리베이션교회(Elevation Church) 담임

목사인 스티븐 퍼틱도 "죽도록 믿어라"라는 저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한 믿음에 안주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며,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 품고 계신 더 위대한 비전을 상상"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책이 기독교 서적 부문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대부분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급진적인 메시지에 열광하는 시장이 커지는 것이다. 책마다 신학적, 목회적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이 펼치는 화려한 언변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중산층 미국인들이 누리 고 있는 편안한 삶의 방식과 쉽게

거기에 동화돼버린 기독교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조장(?)하고, 그 불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과 예수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급진적 기독교 운동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정말로'일 것이다. 플랫폼의 '래디컬'은 서두에서 "급진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예수께 헌신한다는 것이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이들먼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퍼틱은 "만약 하나님이 풍성한 분 임을 정말로 믿는다면...(하나님이

비를 보내셨을 때, 왕하3:16-20의 엘리사가 그랬듯) 많은 도랑을 파야 한다"고 말한다. 예수를 따른다고 자처하면서도 진부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일까?

물론 성경에는 이 질문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많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믿은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라고 촉구한다(고후13:5). 찬은 이 말씀을 분명히 지적하며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라"고 요구한다. 아이들먼 역시 이 구절을 암시하며 예수와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헌신 수준을 판단하라"고 권권한다(아이들먼은 마7:21 "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의 경고를 증거로 제시한다.

최신작 "나를 따라라(Follow Me)"에서 플랫폼은 더 분명한 경고를 말한다. "자신이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자기기만일 뿐이다." 이런 책들을 한 권 두 권 읽어 나가면 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대다수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써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

이라 자부하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진지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도덕주의적이고 치유적인 이신론'(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는지 이미 목격한다. 그리고 '믿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쪼그라든 기독교가 급진적 기독교 운동을 유행시켰다는 사실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과연 어떤 종류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4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M. Div) 김차인, 김현경, 박종원, 이양미, 이종주, 정인수, 이인섭, 이승훈
- 기독교 교육학과(M.R.E) 신선화, 조제인
- 여교역학(Diploma) 정효순
- 신학사(B. Th) 윤승진

일 시: 주후 2013년 5월 27일(월) 오후 8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 처: (718)463-7163  
(718)886-4040  
(646)717-2733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준 박사  
이사장 이용걸 박사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어린이

어렸을 때를 추억해보면 어린이를 하고도 야단과 매를 맞고 쫓겨나서 담장에 기대 서럽게 울던 것을 드시는 아버지의 막걸리 심부름을 하고도 야단과 매를 맞고 쫓겨나서 담장에 기대 서럽게 울던 친구들이 기억납니다. 삶에 지쳐

서 그러셨지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자식들을 저주하던 어머니들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마구 회초리를 휘두르던 선생님들도 이 날만은 잘해주셨습니다. 364일은 어른의 날, 5월 5일은 어린이의 날. 욕을 하시면 울면서 학교에 가야 했고, 때리면 이유도 모른 채 맞아 야 했던 아이들, 조금 크면 풍오줌 싸는 어린 동생을 포대기로 등에 업고 놀아야 했고, 조금 더 크면 학교도 못 가고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던 아이들에게 "어린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신 분은 소와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가 만든 "어린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 존중해야 할 "어린 분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월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지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자라 아버지가 되고 세월이 더 흘러 노년으로 접어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인생을 일곱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한 살은 왕이다. 모든 사람들이 왕을 알현하듯 비위를 맞추어준다. 둘째, 두세 살은 돼지다. 맨땅이든 진흙탕이든 가리지 않고 뒹군다. 셋째, 열 살은 염소다. 웃고 떠들고 장난치며 뛰어논다. 넷째, 열여덟 살은 말이다. 덩치

는 큰데 지혜가 모자라서 뒤편고 힘자랑을 한다. 다섯째, 결혼을 하면 당나귀가 된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산다. 여섯째, 중년은 개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꼬리치며 굶질겨야 한다. 일곱째, 노년은 원숭이다. 다시 어린이아이 같아졌는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인생살이의 모습이 계속 변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노부모님들은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양육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합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더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며, 인생의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마음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온 부모님 세대의 진실한 신앙과 생활의 지혜를 물려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푸/른/초/장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작통의 전성시대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슷한 이름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그 상품처럼 속여 파는 것을 유사품 혹은 요즘 말로 짝퉁이라고 합니다. 짝퉁 중에서도 가장 악한 짝퉁은 복음의 짝퉁입니다. 복음은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른 사이비 복음은 그 소중한 인간의 영혼과 생명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누가 뭐래도 복음만큼은 짝퉁을 철저히 몰아내고 진품복음, 명품복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짝퉁복음은 힘 안들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귀가 가장 즐겨쓰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들어 이 짝퉁복음, 짝퉁교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고 그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사품 짝퉁 복음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짝퉁은 영원히 저주 받아야 한다! 표현이 좀 강하고 자극적이지만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짝퉁은 가장 소중한 인간의 영혼을 약탈하는 일인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이비 즉 짝퉁 복음 중의 하나인 유대주의라고 하는 짝퉁복음에 대적하기 위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 갈라디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간단한 축복의 인사를 마치자마자 따지고짜 갈라디아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1:6).

왜 이렇게 흥분하고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듯 보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다른 복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짝퉁복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구원도 생명도 은혜도 능력도 하나님과 화목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마음대로 해라. 나를 욕하고 싶으면 마음껏 욕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자 최후의 방법이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으로 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저 사람이 멸망으로 빠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 1:1-10)

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는 하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조금만 그럴싸한 미끼를 던져주면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성큼성큼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퉁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진품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는 가슴을 치며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복음과 짝퉁복음 즉 다른 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른 복음의 특징은 첫째, 철저한 신본주의(God-centeredness)입니다(갈1:1). 이 말씀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 말이지만 바로 이 말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울러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의 특징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고 그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구나 다른 무엇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복음을 사람의 구미(논리, 감성...)에 더 맞는 것으로 만들어보려는 미혹입니다.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귀를 간지러 달라 마음을 간지러 달라는 무언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품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그리스도의 중심(Lordship of Christ)입니다(갈 1:4-5). 참된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명목적으로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생활에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 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기쁨의 이유 이구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요 이유입니다. 셋째는 철저한 은혜(Gospel of grace)입니다(시55:1). 참된 복음의 특징은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감추어둔 숨겨진 비용이 없습니다. No hidden agenda, attached string. 반면 다른 복음은 시작은 거저 주는 것 같지만 후에 보면 철저한 회색을 요구합니다. 하다못해 행상이라도 해야 합니다.

넷째는 거룩과 도덕성(holiness)입니다(갈1:4, 5:22-23). 바른 복음은 그 열매가 거룩합니다. 4월 말씀처럼 주님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고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신실성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복음의 주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받은 대로 지키면 됩니다(갈 1:8-9). 바른 복음은 이미 역사적으로 완성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빼거나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새롭게 무엇을 발견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롭게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습니다.

결론: 다른 복음은 가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근 발견된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모두 다빈치를 흉내 낸 모조품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 돈 7,700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세한 조사결과 이 작품이 다빈치의 진품이라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금액이 무려 2050억으로 뛰었습니다. 이 진품을 소유한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한 위대한 예술작품의 진품과 가짜의 차이가 이렇듯 대하물며 복음의 진품과 짝퉁의 차이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진품복음을 소유하신 여러분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짝퉁이 판치고 얼마 안 가서 사람까지 복제하는 짝퉁 인간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복제한다고 해도 복음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제할 수 없고 예수님 복제할 수 없고 십자가를 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품복음 명품복음을 가진 사람의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미혹을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미혹(coax)입니다. 다른 복음은 많은 경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정말 나이스(nice)하고 사랑도 많아 보입니다. 말도 그럴 듯 하고 가슴도 뭉클하게 만듭니다. 넷째는 타락(corruption)입니다. 열매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근간인 되는 건강한 가치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

다. 다른 복음의 특징은 첫째 위조(counterfeit)입니다. 유사하나 내용이 다릅니다.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릅니다.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명목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까닭에 순간적인 감정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변화나 생명은 없습니다. 둘째는 혼란(confusion)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알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알파가 작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압도적이 됩니다.

셋째는 미혹(coax)입니다. 다른 복음은 많은 경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정말 나이스(nice)하고 사랑도 많아 보입니다. 말도 그럴 듯 하고 가슴도 뭉클하게 만듭니다. 넷째는 타락(corruption)입니다. 열매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근간인 되는 건강한 가치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



믿고 맡길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 N.J. United Christian Academy



NJUCA 교육의 특징

- 기독교 교육 이념에 기초한 지성(IQ), 감성(EQ), 영성(SQ)교육
-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한 친밀한 학생관리 및 상담
-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적인 인재 육성
- SAT, TOEFL, 수업을 통한 명문대 진학 준비
- 한식과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환경



2013-2014년 신입, 편입생 모집중

- 대상: 6th ~ 12th
- 인원: 각 학년별 약간 명
- 전형: 서류 및 인터뷰
- 개강: 2013년 9월 5일
- 특징: 국제 유학생에게 정식 1-20발급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훌륭한 크리스찬 미래 리더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6학년 12학년)

www.njuca.org

문의 전화

TEL. (609) 954-2900
73 Holmes Mill Rd.
Cream Ridge, NJ 08514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당신의 자녀, 손자와 손녀, 조카들을 5월 중순에서 5월 말에 있을 왜곡되고 비도덕적인 "Harvey Milk Day" 로부터 보호하세요!(상)

Harvey Milk Day란 무엇인가?

동성애 홍보자이며 동성애 운동가였고 스스로가 동성애자였으며 사생활이 매우 문란했던 Harvey Milk라는 사람의 생일인 5월 22일은 모든 공립학교(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서 기념하게 하는 날이다.

공립학교들은 주로 할비 밀크의 생일이었던 5월 22일을 기념하지만 공립학교의 상황과 스쿨 디스트릭트(School District)에 따라 5월 14일에서 5월 25일 사이에 언제든 "할비 밀크 Day"를 기념하는 날을 가질 수 있다. 2013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날은 5월 20일(월), 21일(화)과 22일(수)이다.

서 비즈니스맨으로 또한 정치인으로 살았다. 1972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오게 되고 카스트로 스트리트에 자신이 좋아하던 카메라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뛰지만 3번씩 떨어진다. 하지만 그는 극적인 캠페인들을 통해 당시 카스트로에 있던 소수의 동성애자들과 함께 자신의 카메라 비즈니스 장소를 아지트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된다.

1977년 자신이 그렇게도 원하던 샌프란시스코 Board of Supervisor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그는 미국에서 최초로 공개된 게이 정치인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자임을

되지 않았던 때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에게 우호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일이나, 그의 문란한 사생활은 그 당시 사람들 가치관과 정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다.

할비 밀크의 비도덕적이고 문란했던 사생활

그는 사는 동안 자신의 동성애적 삶을 통해 생겨났던 성병들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오히려 잘못된 사실들을 정치의 힘을 빌려 퍼뜨리기 시작했었다.

그는 또한 동성애생활 뿐 아니라 십대 소년들과의 성관계 및 어린이 포르노에 깊은

## 5월 14-25일 "할비 밀크 Day" 기념행사 경계 LGBT 삶 우호적으로 가르치고 생활체험 시도

Harvey Milk Day에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수업시간과 학교 프로그램 안에 학생들에게 LGBT(Lesbian 레즈, Gay 게이, Bisexual 양성애자, Transgender 성전환자)의 삶을 우호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LGBT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 Harvey Milk에 대한 책 또는 영화들을 보고 그 사람의 왜곡된 가치관 배우기.

■ 최초의 정치인 동성애자이며 동성애 운동가로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으며 영웅적이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는지 토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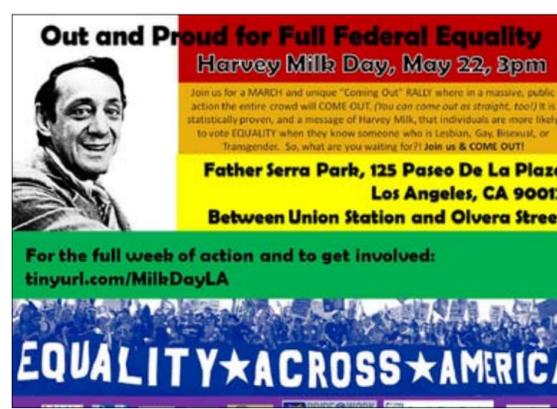
■ 남자와 여자 아이들끼리 다른 성의 옷 입어보고(남녀 옷 바꿔 입기) 성정체성에 대한 토론.

■ 남자와 여자가 동성애 또는 양성애, 성전환자가 되는 것을 가장해 연습, 체험해보기.

■ 동성애/성전환자들의 결혼식 참석하기 또는 결혼생활을 긍정적으로 표현해보기 등등.

Harvey Milk(1930-1978)는 어떤 사람이며 그의 가치관은 무엇이었나?

그의 정치적 백그라운드  
그는 뉴욕에서 우수 비즈니스를 하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 아버지 비즈니스를 도우며 뉴욕에서 성장해 뉴욕에



관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성관계와 여러 성관계를 같은 시간에 갖는 것을 즐겼던 어린 아이들에게 미묘하게 가르치고 은연중 홍보했던 사람이었다. 또한, 한 남성이 여러 아내를 갖는 것을 좋은 것으로도 은연중

밝혀 1970년 후반 그 당시 미국의 정치계를 놀라게 했던 인물로 남게 된다.

그는 SF Board of Supervisor의 자리에 앉은 지 몇 달 안돼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우호적인 법안을 만들어내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카스트로 디스트릭트를 담당해 자신의 정치적 힘을 사용하여 동성애 운동에 매우 활발하게 펼쳐나가기 시작하며 결국은 지금의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카스트로 디스트릭트를 동성애자들의 거리로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전력 기울였다. 그러나 몇 달 후 1978년 11월에 그는 사살을 당하게 된다. 참고로 30년 전인 1970년대 후반에도 미국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동성애적인 삶은 의학적으로는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으로 진단됐던 시대였으며, 정치적으로는 더 더욱 허락

가르치며 마약에도 깊은 관련을 갖는 등 더욱 경악할 것은 자신만 어린이 포르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남자들과도 함께 포르노를 보는 등 그 당시 할비 밀크는 정치인으로서 동성애 운동가뿐 아니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한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더 자세한 사항과 내용들을 한국어로 원하시면 TVNEXT.org로 가시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영어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savecalifornia.com으로 가셔도 되고, TVNEXT.org로 가시면 영어사이드와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아버지날도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20대 공부하는 학생인데 너무 바빠서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버지날이나 아버지생일 때도 매년 아무런 선물이나 전화도 없는데 이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모로서 불려서 가르치거나 해야 하는지요?

**A:** 좋은 질문입니다. 인간은 뱃속에서 25겔름 즉 5달이나 되는 엄청난 어머니의 피를 받아들으면서 태어났고 결혼하기까지 2-30년을 부모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자녀된 것은 자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의 은공입니다. 이 부모의 은공은 하나님 사랑 다음가는 것입니다. 귀택의 자녀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별로 용돈이 많지 않은 것은 알지만 아버지날이나 아버지생일 때도 아무런 선물이나 전화도 없어 넘어가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결혼해서도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방향을 제시하는 자로서 성경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

## 말씀으로 지속적 교육하는 것이 자녀사랑

습니다. 효도하는 법도 자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 잘 몰라서 못합니다. 효도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불려서 내가 부모에게 생신이나 절기 때는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하는 것이 자녀 된 도리로 옳지 않느냐며 돈이 없으면 내가 줄 테니 아빠 엄마의 선물을 작은 것이라도 사와서 드림으로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대접받기 위함보다 교육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의 백아드 정원은 아름다우나 자기가 알아서 크겠지 하고 놔두면 얼마못가서 잡초만 무성한 패허가 됩니다. 정원사를 통해 일주일씩 한 번이라도 가꾸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귀한 자녀이므로 필요한 종교도 하면서 말씀으로 자꾸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 갈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1)인간의 물질화입니다. 2)인간의 동물화입니다. 사람이 돈과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늘 돈, 돈, 돈 하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인간의 물질화입니다. 미국생활에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간이 돈을 지배해야지 돈에 인간이 지배를 당해서는 안됩니다. 돈 때문에 신앙도 팔고 돈 때문에 처녀가 정조도 팔고 돈 때문에 눈이 뒤집혀 사기치고 거짓말해서는 안됩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사랑입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동물은 자기 새끼를 어릴 때에만 사랑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합니다. 음식을 먹일 때도 자기가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서까지 먹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지만 일단 크면 관계를 끊고 멀리합니다. 새끼를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릴 때 어미를 잘 따르다가도 크면 어미를 몰라봅니다. 전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없어집니다. 어미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새끼들을 키웠습니다마는 짐승은 늙은 어미를 봉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늙은 짐승은 내버립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죽어가는 어미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무정한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거나 효도하지 않는 것은 동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말세가 되어서 그렇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져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화 되어서 자기를 낳아주고 키운 부모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채 동물적인 사람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 2013 Missio Dei (GOD'S Mission) for ISRAEL

##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 5. 31 - 6. 2 이스라엘 미션과 중동정세 컨퍼런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 선교!

### 1차 INFORMATION

일시 | 5월 31일 - 6월 2일 (금,토,일)  
[금] 8PM [토] 10AM, 2PM, 7PM [주일] 11AM, 3PM  
장소 | 금,토 - 작은자교회 United Breakthrough Ministries  
주일 - 작은자교회 (11시AM, 3시PM) & 나침반교회 (11시AM Only)  
주소 | 작은자교회 -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나침반교회 -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문의 | 714)635-6402, 714)600-7700  
\*동부일정 | 5월 24일-26일 / Love & Truth Church (문의: www.ltchurch.com)

### 2차 UPCOMING EVENTS

#### 브루클린 페스티벌

일시 | 2013년 8월 13일 - 16일  
장소 | Brooklyn Tabernacle Church  
17 Smith Street, Brooklyn, NY 11201  
<http://www.kibiamerica.org/>

### 3차

#### The People, the Land and the Future of Israel Conference

일시 | 2013년 10월 3일 - 5일  
장소 | Calvary Baptist Church  
123 W. 57th Street, New York City  
<http://www.chosenpeople.com/>

### SPEAKERS



**하니안 투카스 목사**  
휴이파 베네스다 교회 목사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회 회장



**주벤투스 페트리리스 목사**  
케릴라트 하미안 교회 목사  
국가 복음 협의회 위원  
Love to the Needy 단체 이사



**윌리엄 브조카 박사**  
폴리 신학교 석박사  
미국 윌리엄 케리 대학 교수  
미 하나님의 성회 유대인 선교사  
San Fernando Valley  
메시아닉 공동체 설립  
에스겔 오퍼레이션 단체 디렉터.



**아이리eth 아이퍼트 찬양사역자**  
유발 예술학교 코디네이터  
메시아닉 워십리더  
메시아닉 앨범 및 콘서트 기획 다수



**아엘 칼리서 찬양사역자**  
메시아닉 가수 워십리더  
메시아닉 유발 예술학교 엔지니어  
King of Kings Ministries 엔지니어

세계 선교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미션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관 | 작은자교회(UBM), World Partners, KIBI (한국이스라엘성경연구소), Chosen People Ministries

후원 |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미주복음방송

[www.ubmchurch.com](http://www.ubmchurch.com)



**목회서신**

**분별하라**



**여승운 목사**  
(휴스턴 사랑의교회)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이 시대의 영의 지배를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주의 교회와 신자들이 이 시대의 영의 지배를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잠깐 회개해 일어나야 하고 역사적 기독교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해야 한다.

지나온 세월과 함께 복음주의라는 개념이 많이 변질되어왔다. 과거에는 복음주의라는 개념이 다양한 교회들을 결속시키는 절대적 연결고리가 되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의 복음주의는 역사적 기독교에 대한 분명하고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의 변질된 복음주의는 역사적 기독교에 대한 고백을 제치고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현대문화의 감각을 정

신없이 쫓아가고 있다. 성경이 가리키고 선포하는 역사적 기독교의 진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추구하지 않는 한 그것은 온전한 복음주의의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역사적 기독교의 진리를 건지 않고 사람의 이성을 진리위에 두고 쫓아갔던 현재의 유럽 교회를 보라.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님

의 몸인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철학을 쫓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잘못된 복음주의의 길을 걸어갔던 유럽의 교회들이 그 후손들에게 미친 피해는 가히 저주에 가까운 것이다. 현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바른 기독교의 진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냐는 것이다. 좀더 냉철하게 따져보면 당시의 열심이 당신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앙의 질은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기독교 진리는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기독교 진리는 과정도 진리의 길을 요구한다. 현대 교회와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개혁자들이 외쳤던 '술라 스크립тура' 오직 성경으로의 고백이다. 이 고백이 무너지고 있다. 성

경만이 유일한 계시의 진리이며 또한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사상들이 현대 기독교인들 안에 광범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다. 신앙생활 혹은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가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권위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지극히 자아중심적 주관에 더욱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순결한 존중이 자아의 이성과 자유주의적인 현대문화의 흐름으로 인하여 생각보다는 훨씬 더 위협한 수위로 오염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당신의 육적 욕구를 철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외면하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진리는 언제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바른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 진리를 분별하라. 당신의 육적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감각적인 비 진리에 당신 자신을 매몰 시키지 말라. 만약 감각적인 비 진리에 당신 자신을 맡긴다면 평생 반복되는 악순환을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이 고수하는 그 어떤 주관이나 체함도 진리의 성경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다. 복음주의를 외치는 교회나 신자들이 반드시 불잡아야 하는 진리의 시금석은 '술라 스크립тур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꺾이지 않는 나의 육적 자아를 꺾어주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인생의 고비 고비를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네! 그래서 나는 자유하네! "진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복음주의 지성 멀러스 윌라드 박사 소천**



이 시대 복음주의 지성 멀러스 윌라드 박사가 8일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소천했다. 향년 77세. 미국 남가주대 철학과 교수로 '하나님의 모략(Divine Conspiracy)' 등 탁월한 저서를 통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윌라드 박사는 2012년 책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결국 천국으로의 영원한 여행을 떠났다.

윌라드 박사와 절친한 관계인 리처드 포스터 박사는 이를 전 별상의 고인을 찾아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포스터 박사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윌라드 박사는 웃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또 만날 것"이라면서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표했다고 한다. 미국 언론들은 윌라드 박사의 마지막 말이 "생큐(Thank You)"였다고 전했다.

미국 미주리 주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윌라드 박사는 베일러 대학을 졸업하고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50년 가까이 남가주대학교(USC)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남침례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인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철학과 인문학, 신학 등의 방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뤘다. 특히 그는 앨빈 플랜팅가 노트르담대 석좌교수, 리처드 마우전 풀러신학교 총장, '메시지'의 저자 유진 피터슨 박사 등과 함께 현대 미국사회에서 '복음주의 지성의 부흥'을 견인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앞으로 기독교의 고전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한 여러 책들을 저술했다.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음성' '잊혀진 제자도' '마음의 혁신' 등 그가 쓴 책들은 서구 기독교권은 물론 국내 크리스천 독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기독교 영성 훈련'이란 관점에서 그가 끼친 영향은 깊고도 넓다.

**종교자유탄압 15곳 중 10곳 이슬람국**



미국의 독립적 정부 자문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최근 발표한 15개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 중 10곳이 이슬람국가라고 9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기독교 혐오증'이 극심한 이슬람국가들이 대거 종교자유 탄압국으로 지목된 것이다.

USCIRF가 '2013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밝힌 15개 특별관심국은 북한 중국 미얀마 베트남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이집트 이라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이중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과 기독교 인구가 반반이고 북한과 중국은 무종교, 미얀마와 베트남은 불교국가이며, 나머지 10개국은 이슬람 인구가 70% 이상이다.

USCIRF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특별관심국을 지목하면 미국 정부가 이를 토대로 매년 종교탄압국을 지정한다. 보고서에서 소개된 종교탄압 사례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콥트교(이집트의 자생적 기독교) 신자들을 보호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이집트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콥트교도는 이슬람을 모독·비방했다는 이유로 구금돼 고문을 당하거나 이슬람교도에 의해 살해되기도 한다.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2011년 남수단이 분리 독립된 이후 수단을 이슬람국가로 만들기 위해 기독교인 등 70만여명을 추방했다. 북부 이슬람지역과 남부 기독교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나이지리아에선 2009년 이후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테러 공격으로 3600명 이상이 숨졌다. 카트리나 스웨트 USCIRF 위원장은 "종교적 소수집단을 겨냥한 급진주의자들의 폭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무장단체 습격...55명 사망**

보코하람 소속 무장 전사들은 7일 오전 5시경 나이지리아 동북부에 위치한 바마 마을의 군부대와 경찰서, 교도소를 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군인, 교도관 및 주민 등을 포함해 모두 55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바마와 가까운 지역 중심도시 마이두부리의 군대 변인 무사 사기르는 중무장한 보코하람 전사들이 먼저 군부대를 기습하고 나서 교도소를 공격해 죄수 105명을 탈출시켰으며 이어 경찰서에도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사기르는 경찰관 22명과 교도관 14명, 군인 2명, 주민 4명이 숨졌고 보코하람 측에서도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코하람 전사들이 습격하면서 수류탄을 던졌다면 이로 인해 경찰서 건물과 여러 대의 차량이 불에 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보코하람은 지난 4월 차드호수 인근 마을 바가를 공격해 정부군과 교전했으며 당시 주민 등 모두 187명이 사망한 바 있다. AFP통신은 보코하람이 지난 2009년부터 테러 행위를 벌인 이래 지금까지 모두 3천 600명이 숨진 것으로 전했다.

**예루살렘 최고 이슬람성직자 구금**

이스라엘 경찰이 8일 예루살렘의 최고 이슬람 성직자를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일간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 마키 로젠펠트는 "이슬람 성직자 무하메드 모하메드 후세인을 그의 자택에서 불법히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프티는 전날 예루살렘 성지 템플마운트에서 발생한 난동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템플마운트 주변에서는 이슬람교도 약 15명이 템플마운트를 방문한 유대인들을 향해 의자를 던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 보안군에게도 의자를 던져 2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이스라엘 경찰은 현장에서 아랍계 청년 1명을 연행했다. 아랍어로 하람 알 사티프로 불리는 템플마운트에는 이슬람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알 아크사 모스크(이슬람 사원)가 자리 잡고 있으며, 유대교에도 솔로몬의 신전이 세워졌던 곳으로 여겨지는 최고의 성지이다.

**전세계 6800언어 중 2798개만 성경번역**

성경번역선교회(GBT)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종족에게 성경을 번역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로 위클리프국제연대(WGA·Wycliffe Global Alliance)의 회원이다. WGA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 6800여개 언어 가운데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2798개다. 이 중 성경 전서가 번역된 언어는 518개뿐이다. 나머지 1275개는 신약성경만 번역됐고 1005개는 일부만 번역돼 있다.



현재 WGA 선교사들은 2075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1967개 언어로는 번역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앞서 WGA는 1999년 국제총회에서 "2025년까지 성경번역이 필요한 모든 언어로 번역을 시작한다"는 '비전 2025'를 세웠다.

WGA는 1942년 설립된 이후 780여개 언어의 신약성경과 20여개 언어의 성경전서를 번역하는데 헌신했다. WGA에 소속된 단체는 GBT를 비롯해 45곳이며 70여개 협력단체도 동참하고 있다.

85년 출범한 GBT는 모국어 성경을 갖지 못한 300종족을 감당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200여명의 선교사가 사역 중이다. 현재까지 GBT 선교사들은 10여개 언어로 신약 및 구약 성경 등을 번역하는 데 힘을 쏟았다. WGA는 1917년 미국인 카메룬 타운젠드 선교사의 과테말라 사역에서 시작했다. 스페인어 성경을 보급하려 했던 그는 "당신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왜 우리말을 할 수는 없느냐"라는 말을 듣고 성경번역 사역에 나서게 됐다.

선교단체명은 1300년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국제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WBT)라는 이름을 쓰다가 2011년 WGA로 바뀌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연대해 성경번역 사역에 힘을 쏟자는 의미에서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여름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ESL 여름학기**

본교 ESL 교육원에서는 2013년도 여름학기부터 다양한 영어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여러분의 학업과 사역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설 프로그램(시간표는 본교 홈페이지 www.ptsa.edu에서 확인)

- 1) 종합반** SEVIS i-20 발행 가능. (최소 5과목 수강필수)
  - 개설강의: 문법, 작문, 읽기/토론, 듣기/발표, 어학실 실습, 드라마, 뉴스와 신문으로 배우는 영어 및 회화
  - 강의일정: 주간반 - 월, 화, 목, 금 / 오전 9시~오후 4시  
야간반 - 월, 화, 목, 금 / 저녁 6시~11시  
주중 집중반 - 월, 목 / 오전 9시 ~ 밤 10시

- 2) 단과반**
  - 개설 강의: 영어목회수료반, 토폴 준비반, 드라마, 뉴스와 신문으로 배우는 영어 및 회화
  - 강의 일정: 1과목당 월, 목 또는 화, 금요일이 한 세트로 오전, 오후, 저녁 각2시간

**영어목회수료반 (Certificate of English Ministry)**  
영어설교준비반, 영어예배준비반을 거쳐 영어설교반, 영어예배반을 마치면 영어목회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학사(B.A.), 교역학석사(M.Div.)**

- 여름 계절 학기: 2013년 6월 10일~8월 16일
- 가을학기 개강일: 2013년 8월 26일(월) 온라인 강의 전격개설
- 입학안내는 본교 홈페이지 입학정보실 확인 또는 office@ptsa.edu로 문의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 Homepage : www.ptsa.edu / e-mail : office@ptsa.edu



**모나리자 스킨케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팔솔림 케어(스페셜 기계도입)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케어도 환영합니다.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황 의 영 목사

(SBM 대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6:4-9) (3)  
“Hear, O Israel” –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3. 교육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의 정신과 그 영향

유대인들의 특별한 교육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특징이 더욱 돋보입니다.

주후 70년 8월, 로마 군대에 의해 유다나라가 마침내 송두리 채 멸망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 오히려 비참하게 패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34m 높이의 절벽에 자리 잡은 고대의 왕궁이자 요새인 마사다(Masada) 고지에서 수년간이나 로마군에 끝까지 항거하던 유대인 저항군 960명이 식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나 로마군의 포위망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패배가 임박하자 로마군에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제비를 뽑아 서로를 죽이는 방법으로 자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살을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

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깨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항거하던 유대인들이 학살 당하기 바로 직전에 특기할 만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군 총사령관인 Vespasian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면담은 성사되었습니다. Zaccai는 Vespasian 장군을 만나자 장차 로마의 황제(Emperor)가

## 기본교육은 가정에서 시작...고유 언어 익히고 신앙 기본 전통 배워 선민사상과 역사적식 고취·토라에 의한 철저한 생활수칙 따라 행동

당시 온건파의 지도자로 크게 존경 받던 랍비 Yochanan ben Zaccai(갈릴리지역의 Arav 출신)가 로마군대의 삼엄한 포위망을 뚫고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먼저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트린 뒤에 마침내 죽었다고 밖으로 뉴스를 전하고 관(coffin)속에 들어가 장례행렬을 가장하여 극적으로 빠져나간

될 것이라고 추켜세우며 환심을 샀습니다(그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헤롯의 궁전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도 (2)화려한 성전이 훼손되어도 (3)예루살렘 성곽과 생활터전이 모두 파괴되어도 관망이나 꼭 보호해줄 것이 있다면서 간청했습니다. 드디어 Vespasian은 허락은 것

이라고 생각되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1)허스름한 유대인 학교(Yavne)와 (2)다윗 왕가에 속한 존경받는 Rabban Gamliel의 자손들 그리고 (3)예루살렘의 멸망을 여러모로 지연시켜온 의사(physician to treat) Rabbi Tzadok을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패망하여 주권을 상실해도, 성전이 파괴되어 더 이상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도, 삶의 보금자리인 집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도,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서 굶주리고 헐벗게 되어도, 인권과 자유를 완전히 빼앗겨 노예가 되더라도 특수한 교육 하나만은 반드시 존속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Zaccai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의 맥이 끊어지는 것은 막겠다고 판단하여 학교와 유능한 교사들을 보호하려고 안간 힘을 기울였습니다.

Zaccai는 호세아서 가운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6:6)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성전이 완전히 파괴

받은 많은 제자들이 사방에서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토라(Torah)를 배우면서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Rabbinic Judaism(Mishnah)과 더불어 Jewish Messianism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멀리 알렉산드리아(Alexandria)학파에 크게 미쳤습니다.

4. 변함없이 이어오는 유대인의 교육전통

초창기에 예루살렘 부근에는 회당이 394개 처나 산재해있었습니다. 회당은 배우는 집(House of Study: Beth Hammidrash)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school for children: Beth Hasepher)였습니다. 교육은 가정(home), 회당(synagogue), 그리고 학교(school)의 삼각구조(three channels) 시스템(system)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본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고유 언어를 익히고 신앙생활의 기본과 전통을 배웁니다. 그만큼 부모는 교사로서의 큰 책임과

교를 세우고 엄격하게 선민사상과 고유의 정신을 계승해가고 있습니다.

5. 유대인들의 교육철학과 그 특징

유대인들의 투철한 신앙교육은 그 특징이 토라(Torah)와 교사의 절대권위에서 비롯됩니다. 회당에는 랍비(Rabbi)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랍비에게 배운 부모가 교사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감당합니다. 물론 자녀들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1)유대인들의 교육원리  
(1)쉐마(Shema)에 근거하여 관습을 이어갑니다. (2)유대인(Jewish)으로서 정체성과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3)토라(Torah)에 의한 철저한 생활수칙을 따라 행동합니다.

2)유대인들의 교육철학  
(1)교육목적이 뚜렷합니다-선민사상과 역사적식을 고취합니다. (2)교육철학이 분명합니다-왜"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찾습니다. (3)교육체계에 일관성이 있습니다-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계승합니다.

3)유대인들의 교육방식  
(1)유대인들의 교육은 먼저 부모가 랍비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2)그리고는 가정에서 돌아와서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물론 생활의 모범을 보이며 말입니다. (3)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안식일과 절기를 철저히 지키므로써 신앙적인 전통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생활 가운데 특수한 종교문화를 형성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교재는 주로 모세 오경에서 따온 토라(Torah)와 옛 탈무드(Talmuds)를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전통을 생명처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예외 없이 회당(Synagogue)학

된 이후에 새로운 신앙의 형태를 강조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하던 제사장 위주의 의식을 대신하여 랍비가 중심이 되어 가르치는 교육에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Yavne의 학교를 중심으로 유대주의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Zaccai의 특별한 정신과 교육철학에 감동



### 가정사역 칼럼

## 위기 속의 피난처 - 가정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얼마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님의 추도예배 때의 일이다. 우리 가족은 추도예배 후 고인의 좋았던 점, 그분이 지니셨던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세대와 다음세대에 미친 영향 등을 나누는 시간을 늘 갖곤 한다. 어느 때처럼 예배를 드리고 화기에애한 가운데 고인이 되신 아버님에 대한 덕담을 나

누고 있는데, 동생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천호동 지금의 천호대교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갑작스런 물난리를 맞았었다. 온 동네가 다 잠겼고 작은 배가 사람들을 밖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가족은 다락에서 1주일을 버텼던 때가 있

었다. 아마 6.25를 겪으셨던 부모님께서 가족이 흩어지면 다시 못 만날까봐 물난리 속 다락방에서 지내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다.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다. 부모님들도 처음 겪으신 일이고 더 더욱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상황이었다. 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좁은 다락에서 온 가족이(개와 고양이까

지) 불편한 가운데 지냈었다. 지금 생각하니 부모님은 얼마나 조마조마 하셨을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맞았던 자녀들은(동생, 나) 새로운 경험에 흥분되어있었고 마치 모험을 하는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신나는 추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과 함께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란 감동적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식을 위하여 끝내 웃음을 잃지 않으며 희망을 발견하려는 아버지의 무

를 바탕으로 마침내 독일의 패망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어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이다. 2차 세계대전과 독일 히틀러의 맹크부대의 공포스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전쟁놀이로 꾸며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인 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랑과 믿음, 소망이 있는 한 내일은 마침내 힘을 얻고 자유를 누리며 또 다른 사랑과 믿음, 소망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가정은 이처럼 안전한 쉼터에 분명하다. 추운 겨울날에도 까르르 숨넘어가듯 웃는 아이들의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부모님의 소리, 그리고 저녁식사시간의 맛있는

음식냄새는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즐겁고, 사랑스럽고, 평안한 분위기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 그렇다. 우리 주변의 어떤 가정을 떠올리면 웬지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며 힘을 부여 받을 수 있는(empowering) 가정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웬지 쓸쓸하고 집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며 힘을 공급해줄 수 없는 가정이 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가정인가 아니면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 가정인가 잠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정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 이메일: familykum@gmail.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 본교 소개 및 특전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nline Courses (8 weeks)

### 온라인 강의(8주간)

####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 Korea

• Nov 4-8 (11월 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익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36. 젊은 지구에 대한 10가지 과학적 증거: (3)헬륨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할 행 사장에 풍선이 빠지는 어렵다. 그 풍선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도 록 헬륨이 들어있다. 헬륨은 가장 가벼운 기체인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자로 공기무게의 7분의1 수준이다. 수소가 헬륨보다 더 가벼운데도 풍선에 헬륨이 사용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다. 헬륨은 아주 안정하여 다른 원자들과 반응을 하지 않아 불활성(inert 혹은 noble)기체라고 부른다. 이 헬륨이 지구의 나이가 불과 수천년임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 1. 저어콘(zircon) 속의 헬륨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돌이 화강암이다. 주로 하얀 바탕에 까만 점들이 박혀 있는 돌인데 이 까만 부분을 분석해보면 그 안에 저어콘 결정이 소량 들어있다. 이 저어콘 안에는 방사능 물질인 우라늄이나 토륨이 들어있다. 방사능 물질은 안정하지 않아 방사선을 내면서 붕괴하여 안정한 다른 원소로 변한다.

우라늄은 납으로 변하는데 단번에 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붕괴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납이 된다. 이때 헬륨가스가 생기는데 우라늄 원자 한 개가 완전히 붕괴하면 8개의 헬륨원자가 생긴다. 화강암 속에서 생겨난 헬륨은 암석 속의 어떤 성분과도 결합하지 않는 자유로운 불활성 기체이므로 암석 밖으로 빠져 나와 대기 중에 떠다니게 된다. 그런데 헬륨이 암석에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 헬륨은 10만년 이상 그 암석 속에 머무를 수 없다. 이 빠져나오는 속도를 사용하면 암석의 연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뉴멕시코 주 기반암에 있는 화강암 속에 들어있는 저어콘을 분리하여 헬륨의 양

을 분석해보았다. 이 화강암의 나이는 우라늄동위원소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15억년 된 것이었다. 우라늄의 붕괴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이 암석에서 생성된 헬륨의 양은 극미량이어야 한다. 한편, 생성된 헬륨은 암석에서 10만년

들의 학회(American Geophysics Union, 2003년 12월)에 심사를 거쳐 발표되었다.

우 헬륨 연구결과는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우라늄과 납만을 염두에 두고 연대를 측정하면 그 화강암의 나이가 15억년으로 계산되지만 그 화강암 속의 헬륨분석을 통해 연대를 계산하면 6,000년이다. 이 데이터들은 모두 다 똑같은 화강암을 분석하여 나온 실험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므로 어느 것도 간단하게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그 두 숫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현재 우라늄 붕괴속도로는 15억년 걸릴 만큼의 우라늄이 불과 몇 천년 전에 단 한 순간에 붕괴해버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만 우라늄동위원소법으로 측정된 15억 년과 헬륨으로 측정된 6,000년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 일순간의 우라늄 붕괴가 사실이었다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로는 방

대기 중에 쌓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땅에 있는 암석 속에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엄청난 양의 헬륨이 들어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지구의 대기가 헬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때 공기의 평균무게가 헬륨에 가까워 풍선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물론 인류가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편, 헬륨의 양이 맨 처음에 0%였다 해도 180만년이면 현재 대기 중의 헬륨농도가 된다. 그러나 창조와 노아홍수 격변 당시에 방사능붕괴속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랐음을 감안 한다면, 그래서 많은 양의 헬륨이 단 시간에 생겨났다면, 6000년 안에 현재 대기에 있는 헬륨이 생겨났다는 설명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란 주장은 대기 중의 헬륨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화강암 속에 갇혀 있는 헬륨뿐 아니라 대기 중의 헬륨의 비율은 지구가 수십억 년 오래된 것이 아니라 수천년 되었음을 확 인해주고 있다.

## 우라늄동위원소방법으로 15억년 측정·헬륨측정으로 6000년 우라늄이 몇천년전 한순간에 붕괴했다고 가정하면 둘 다 가능



### 헬륨으로도 확인되는 성경의 역사

화강암 속에 남아 있는 헬륨과 대기 중에 존재하는 헬륨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아니라 불과 수천년임을 보여준다. 성경도 지구의 역사가 약 6000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15억년 되었다는 암석 속에는 헬륨이 거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암석 속에는 암석의 온도에 따라 우라늄 붕괴시에 생겼을 헬륨의 58%까지 남아있었다. 헬륨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 화강암은 10만년 이상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 화강암에서 헬륨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관찰하여 정량적으로 계산한 결과 이 화강암의 나이는 6000+2000년으로 나왔다. 이 화강암은 진화론자들이 선크브리아 암석이라고 부르는데 창조과학자들의 암석분류법에 의하면 노아홍수 이전에 형성된 암석이다. 다시 말하면 이 화강암은 창조 때 형성된 것인데 헬륨으로 계산한 나이가 6,000년인 것이다. 이 연구결과 는 지난 칼럼에 소개한 석탄의 방사성탄소와 더불어 일반 과학자

실제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 결과는 오차가 심각하게 커서 계속 측정하면 발표자가 원하는 연대가 나오게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들은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고 있다.

### 2. 대기 중의 헬륨

수 억 년 뒤에는 헬륨가스로 풍선을 띄울 수 없는 때가 온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수억 년 계속 지속되었을 경우라는 가정이 들어있다. 현재 대기성분은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93%,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많은 것이 헬륨인데 0.0005%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각의 암석들에서 쉽게 헬륨이 나오는 우라늄과 토륨에서 헬륨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그 헬륨은 머지않아

가능 한 (radio halo)이 있다. 이 사실들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 3. 진화론자들의 헬륨연구 비평

지구는 46억년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화강암 속의 과량의 헬륨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첫 번째 주장은, 저어콘 속에 들어 있는 모든 헬륨이 방사능붕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우에서 확산되어 저어콘 속에 들어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어콘 지우에 있는 다른 광물들은 저어콘보다 헬륨농도가 낮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기체가 확산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칙은 이미 확립된 법칙이다. 또 다른 비평은 저어콘 표면이 헬륨을 잘 빠져 나가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어콘을 포함한 운모는 증으로 되어있는데 헬륨은 그 층과 층 사이를 거침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풍선을 통해서도, 성경대로 불과 6000여 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해준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렘23:24).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손을 이룰 행한 줄을 알지 못하랴"(욥12:9).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종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순종의 비밀

어느 날 작은 말 한 마디가 우리 부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말없는 냉전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었 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남편이 실수했고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이번에는 내가 먼저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냉전 상태는 비밀로 지켜지지 않나 봅니다. 이제 는 큰애도 알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망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남편과 말하지 않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우울합니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매일의 삶이 계속됩니다. 큰 원수가 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내에게 무슨 원한이 그리도 많은지 입을 꼭 다물고 나를 잘살고 있는 남편을 보니 섭섭하고 야속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냥 본인이 먼저 사과하면 붉은 녹두이 사르르 풀릴 텐데...

내일이면 일주일일이 넘어갑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은 "내가 100번 잘못했어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잘못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에게만 억울하게 하시는 것 같아 눈물이 났지만 가만히 그분의 위로와 마음을 가득 담아봅니다. 그분의 질서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으니 커다란 자유가 내 안에 밀려옵니다.

등을 돌리고 자는 남편의 등을 꼭 부둥켜 앉고 방금 들었던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봅니다. "여보, 내가 백번 잘못해도 당신께 순종하지 않은 태도는 가장 큰 잘못이래요. 미안해요." 순간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강의 자유를 선물로 주었는지 모릅니다. 거역에는 속박이 있고 순종에는 자유가 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지요.

성경은 오늘도 질서대로 사는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라고 강조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각 분야에서 여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일이 빈번한 오늘의 세상살이에서도, 이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어떤 질서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머리와 목의 질서'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외모보다 행실로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태도로 보여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으로 여기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빛나게 해줌으로 자신의 존제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남편이라도 목인 아내가 수십 가득한 얼굴로 주저머 있으면 남편의 가치는 떨어져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내가 험한 그릇처럼 강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험한 파도처럼 출렁일 그 때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복종의 태도가 안 보이는 험한 그릇 같은 그 때에도 포근한 사랑으로 넉넉히 안아주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부드러운 것입니다. 아내를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룰 자로 여기는 귀한 태도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비밀을 누리며 실천하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 미주 갈멜산기도원 정기 기도성회

| 일시 : 5월 16일(목, 저녁) ~ 23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성교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 원로·은퇴목사 초청 오찬

2013년 5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 초청인원 : 70명
- 문의 : (818) 306-4912
- 주최 : 미주 갈멜산기도원
- 협찬 : 미주 크리스천신문  
남가주 기독교원로목사회  
남가주 목사회

미주 갈멜산기도원 정기 기도성회

# 한국찬송가공회와 5월8일 MOU 체결

## 미주찬송가공회 임원회 및 사역발표 기자회견

미주지역 교회음악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미주찬송가공회(회장 박재호 목사)는 2013년도 임원회 및 사역 기자회견을 8일 오후 1시 JJ그랜드호텔에서 갖고 2013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미주찬송가공회는 한국찬송가공회와 5월 8일부터 업무협약(MOU) 체결을 발표했다.



미주찬송가공회 임원회 및 사역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미주찬송가공회는 올해 사역계획으로 △제3회 미주찬송가 페스티벌 △제3회 교회음악 공로자 시상식 △교회음악 발전과 교회음악 전 공자를 위한 진흥재단 설립 △미주교회음악 경연대회 △한국인 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합창교음악회 △한국찬송가공회 미주찬송가공회 정식 MOU 체결 등이다.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넓게 분포돼 있고 특정장소에서 모일 경우 거리상 참석하기 어려운 교회가 있는 만큼 3주간에 걸쳐 LA, OC, 리버사이드 지역으로 분산 개최하며 미주찬송가 페스티벌과 같은 시기에 갖게 된다.

미주찬송가 페스티벌과 미주교회음악 경연대회는 오는 10월에 개최한다. 교회음악경연대회는 남가주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넓게 분포돼 있고 특정장소에서 모일 경우 거리상 참석하기 어려운 교회가 있는 만큼 3주간에 걸쳐 LA, OC, 리버사이드 지역으로 분산 개최하며 미주찬송가 페스티벌과 같은 시기에 갖게 된다.

회이다. 또한 진흥재단은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되며 이를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박재호 회장은 “교회음악이라는 것은 부자와 공부가 많이 이뤄져야 가능한 분야”라며 “본 재단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며, 실질적인 인재양성을 해 교회음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재단기금조성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재단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인 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남미선교음악회는 7-8월쯤 열린다. 이에 대해 박재호 회장은 “브라질 이민 50주년은 미국의 100여년의 이민역사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미국인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특히 브라질은 2014년에 월드컵, 2016년에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성대한 음악회가 될 줄 믿는다. 음악회 팀들이 브라질에서만 참여할 경우 개최가 쉽지 않을 때 때문에 북미지역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찬송가공회는 한국찬송가공회와 8일에 정식으로 MOU를 체결했다. 두 단체는 2013년 5월8일부터 2016년 4월30일까지 3년간 찬송가의 연구·개발 보급 사업을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자세한 문외는 정세광 총무/(213)700-7575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에 이성한 목사

## 12일 공동의회에서 92.3% 찬성으로 결정



뉴욕 장로교회 새 담임목사에 이성한 목사(사신·뉴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 담임)를 결정했다. 동 교회는 지난 12일 3부 예배 후 70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공동의회에서 704표의 유효표 중 찬성 650표 반대 54표로 가결에 필요한 66.6%를 압도적으로 넘는 92.3% 찬성으로 이성한 목사를 4대 담임목사로 결정했다. 공동의회는 임시 당회장 최광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청빙위원장 박병태 장로의 투표표 설명, 박현철 은퇴 장로의 기도 후 투표가 진행됐다. 1961년생인 이성한 목사는 보스턴장로교회 교육목사를 거쳐, 새언

약장로교회(1995-2003), 뉴저지 리버사이드커뮤니티교회(2003-2009)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2009년 9월 뉴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PCA 교단) 담임목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사역해오고 있다. 김진희 사모와의 사이에 2남2녀가 있다.

이 목사는 1975년 14세 때 이민 온 1.5세로 컬럼비아 대학과 고든콘웰신대원을 졸업하고 1993년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사회경력으로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뉴욕 도시계획국에 근무했다.

뉴욕장로교회는 13일 열리는 뉴욕서노회 임시노회에 이성한 목사 청빙건을 올렸으며, 이성한 목사도 14일 현재 시무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 임시당회에서 사임건을 처리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 영혼구원 주목적...자녀들에게 효도 강조

## 뉴욕병원선교회, 14회 어버이날 효도잔치

뉴욕병원선교회(대표 김영환 목사)가 주최하는 제 14회 어버이날 효도잔치 한마당이 지난 7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350여명의 노인들이 초청된 잔치에서 김영환 목사는 “효도잔치를 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영혼구원에 있다”고 강조하고, “자녀들을 통해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강조해 드리는 것에 있고 평소 애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다 해도 자칫 우울하게 지내실 수도 있으므로 하루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헤쳐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효도잔치는 김영환 목사 사회로 기도 헌영감 목사, 설교 최창섭 목사, 초청과 결신의 시간, 특별연주 유진웅 단장, 축사 박진하 목사, 이 미션 목사,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민승기 뉴욕한인회 회장, 임성은 목사, 함승환 변호사임형민 원로, 축도 황영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공연에는 사물놀이, 하나뿐인 화원 한양무, 손소혜 집사의 오카리나 연주, 뉴욕말씀선교회합단의 찬양, 정인국 집사 바이올린 연주, 정태희 한국무용단, 지인식 목사부부 댄스, 우현미 집사 임지옥 목사의 클라리넷 연주 등이 있었다.

김 목사는 “예년보다 많은 분이 참석하셨고, 그래서인지 예수 영접하신 분이 많았다”며 “특별상으로 TV와 카메라, 장수상으로 한약 1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병원선교회는 매년 어버이날과 추석 때 2회의 효도잔치를 열고 있으며 봄에는 워싱턴DC 벚꽃맞이 효도관광을 진행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기성 LA지방회 남감찰회 주최 LA복음화를 위한 김문훈 목사 초청 부흥성회 네째날 집회에서 김문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LA 지역복음화위해 성결교인 뭉쳤다!

## LA지방회 남감찰회, 김문훈 목사초청 부흥성회

미주성결교회 LA지방회 남감찰회가 주최한 LA복음화를 위한 김문훈 목사(부산포도원교회 담임) 초청 부흥성회가 7일부터 12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그는 “신앙인에게 신앙 생활하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하는 단계이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먼저 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인격

적으로 하자가 있어도 믿는 자들의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것의 대표적인 자가 야곱이다. 둘째,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되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신다. 셋째,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인격이 뒤집어지고 권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사역자들이 성령충만 없이 사역하는데 그것은 저주다. 또한 성령 충만 없이 찬양하는 것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살자.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살자.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근신되게 하지 마며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부흥성회는 7일임마누엘선교회(류종길 목사), 8일 나성성결교회(정호운 목사), 9일 미주성결대학교(류종길 총장), 11일 에방선교회(김종호 목사), 12일 갈릴리선교회(한천영 목사) 나성성결교회(정호운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박준호 기자)



뉴욕병원선교회가 주최한 제 14회 어버이날 효도잔치. 원내는 김영환 목사부부.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b> 담임목사: 전희수 교역목사: 케티리언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b>기쁨과 영광교회</b> 담임목사: 전희수 교역목사: 케티리언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b>뉴욕갯세마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6:00(월-토) 오전 6:30(토)	<b>뉴욕중앙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주일기도회: 오전 11:00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뉴욕순복음인도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새)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뉴욕효신장로교회</b>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일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예배: 오전 1:30 6부 BM&EM: 오후 3:00 7부예배: 저녁 7: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전 5:40(월-토) 새벽기도회: 오후 8:30 (매주 주, 3부)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영어예배: 오전 10:45 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선한목자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전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45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8:30 NCF영어: 오전 1:30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남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환교예배: 오후 11:00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b>벤엘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보스톤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청년부: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볼티모어교회</b>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b>샬럿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1부예배: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환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토요일: 오전 6:30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b>앵커리지델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b>엘파소델린교회</b> 담임목사: 하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메일주소: jsc@josephvision21.org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토)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한/영)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단)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템피자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후 7:45 주일예배: 오전 6:30(토)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영인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하드트레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영인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74 Fax. (718)886-0070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동부교계 기사판



미드웨스트대학교 여름특강 및 졸업식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 여름 특별 글로벌리더십 세미나가 6월 13일(목) 오전 9시부터 14일(금) 정오까지 열린다. 강사는 Shemchenko 목사(러시아), Bob Fu 박사(중국), Bill Federer(IEC 프레지던트), 김금Y(미드웨스트 총동문회장), 제임스송 박사. 한편 27회 졸업식이 14일(금) 오후 3시에 열리며, 제 27회 여름 콘서트가 저녁 7시에 열린다. 이 기간 중에 '결혼과 가족상담' 세미나(강사 김성준)가 진행된다.

▲문의: (636)327-4635

담임목사 청빙

한인필라델피아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39년된 교회로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자격은 합동/통합(장로교)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자로 이력서, 목회소견서, 가족소개서, 최근 6개월내 설교CD, 대학 및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가 필요하다. 마감은 6월 15일.

▲문의: (267)243-7779, (215)836-9886

뉴욕교협 이단대책 세미나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섭 목사)가 주최하는 이단대책세미나가 오는 20일(월) 오전 9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명룡 교수(한국 장로신학대학 및 대학원 총장, 제 16대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이단과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718)358-0074

뉴욕예일장로교회 설립2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갖는다. 임식은 5월 19일(주) 오후 5시. 또한, 26일(주) 오후 2시30분에는 드라마 '룻' 공연도 갖는다.

▲문의: (516)938-3824

장학생 모집

아름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 장학위원회가 제 20회 비전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대학생(2천달러), 대학원생(3천달러)으로 신청서 제출마감일은 6월 22일(토).

▲문의: (516)458-5195

장경동 목사 초청집회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5월 24일(금)부터 사흘간 장경동 목사 초청집회를 갖는다. 뉴저지 성전에서는 27일(월)부터 사흘간 "행복한 복음축제"를 개최한다.

▲문의: (718)321-7800

크리스천청년 만남의 캠프 'If Only'

공연기획사 PalmPaly가 주최하는 '우리 사랑할까요-If Only'(이하 'If Only')가 5월 30일(목) 코네티컷 메디슨에서 2박3일간 진행된다. 이번엔 기획한 'If Only'는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해변을 바라보는 캠프장에서 잠시 여유도 갖고, 새로운 만남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크리스천 청년들 간의 만남을 위한 캠프인 'If Only' 참가자는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 또 2박3일간의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뉴욕의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해 6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뉴욕 맨해튼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우리 사랑할까요-Romantic City'도 준비 중이다. 매일 저녁 맨해튼 특정 장소에서 만나 주어진 게임과 미션 수행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planplaynyc.com)에서 받고 있다.

▲문의: (516)978-7526

뉴저지 늘샘교회 2대 담임목사 취임예배

뉴저지 늘샘교회(구 늘푸른생명나무교회)가 설립10주년 기념부흥회(5월 24-26일) 및 2대 신준희 담임목사 취임예배(26일 오후5시)를 갖는다. 부흥강사는 이규섭 목사(퀸즈한인교회 담임).

▲문의: (201)249-4503

뉴욕목사회 종합우승·내년엔 필라 개최  
제7회 미동부지역 4개주 목사회 연합체육대회

제 7회 미동부지역 목사회 연합 체육대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 13일 키세나파크에서 열려 뉴욕 주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미동부지역 목회자연합체육대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월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행사 연이어

회장취임 및 월례예배, 나비박물관 관람

뉴욕원로목사회(회장 김용해 목사) 5월 월례예배 및 회장취임예배가 지난 8일 뉴욕제일감리교회(담임 지인식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소의섭 목사 사회로 기도 정인식 목사, 설교 표용은 감독, 축사는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뉴욕목사회 회장 최예식 목사, 전 뉴욕교협회장 김해중 목사가 했으며 초대회장 장정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지난 9일 뉴욕원로목사회 은퇴 목회자들을 뉴저지 나비박물관(World of Wings)에 초청했다.

김종훈 회장은 원로 목회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삶으로 그동안

수고를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날 점심은 김종훈 목사가 시무하는 예일장로교회가 준비했다.

나비박물관은 한인업체가 세운 전문박물관으로 7만9천9백여평의 면적에 나비온실, 나비전시관, 체험학습관, 대화형 미디어관 등으로 이루어진 박물관과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연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비박물관 이조연 부사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가정들이 박물관에서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개관했다"고 설명했다. 나비박물관측은 이날 은퇴 목회자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정리: 유원정 기자)

"오직예수, 성령충만" ..교회문턱 낮추겠다

이상조 목사 뉴저지 펠팍한인교회 담임 취임

고어헤드선교회 회장 이상조 목사가 지난 5일 뉴저지 펠팍한인교회 담임 취임식을 했다.

정통루터란 형식으로 본부에서 비숍이 주관했다. 동 교회가 소속된 루터란 교단은 루터란 처치 미조리 시너드(LCMS)로 정통 루터의 정신을 지키며 한국에는 성경 및 신학교재 '벤엘성서'와 '크로스웨이' 코스로 잘 알려져 있다.

이상조 목사는 "앞으로 우리 뉴저지 펠팍한인교회는 '오직 예수, 성령충만'을 표어로 예배는 전통 신

앙으로, 찬양은 영혼을 울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읽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웃 사랑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다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장수나 상담 구제 등으로 활짝 열어 놓고 섬길 것이며 교회의 문턱을 낮춰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치료 받고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원정 기자)

경기결과를 뉴욕목회자팀이 축구, 족구, 테니스 3개 종목에서 1등을 해 종합우승을 했으며 배구는 메릴랜드, 탁구는 필라델피아 목회자팀이 각각 1등을 차지했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후원하자"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제2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주최하는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위한 제2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14일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김종훈 목사는 "기도 이외에는 이를 수 있는 게 없다"며, "기도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뉴욕지역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교회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감사하겠다"고 인사했다.

예배는 송일권 목사 인도로 기도 이상정 사관, 성경봉독 김주열 장로, 설교 송병기 목사("제자 삼으라", 마18:19-20), 특별통성기도 박태규 목사 김희복 목사 주효식 목사, 광고 장경혜 목사, 축도 장식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통성기도 제목은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 △할렐루야 2013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 강사 양병희 목사(성인)를 위해, 강사 제이슨김 목사(청소년)를 위해, 강사 정승환 목사(어린이)를 위해, 준비위원들을 위해, 은 교회와 성도

들의 참가를 위해, 날씨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대회 후원을 위해.

2부 준비진행과정 소개는 준비위원장 김수태 목사와 총무 현영갑 목사가 발표했다.

김수태 목사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해서 장소를 윈즈칼리지로 정하고보니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요일에는 할렐루야대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회원 교회별로 후원비를 책정했는데 예년상황을 보면 실제 후원은 60여 교회뿐이었다"며 "이번에는 많은 교회가 후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차 기도회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열린다.

한편 할렐루야대회를 마친 후 7월 15일(월) 열리는 목회자세미나와 같은 시간에 사모세미나가 열린다. 강사는 양병희 목사 사모가 맡는다.

(유원정 기자)



이상조 목사(왼쪽) 뉴저지 펠팍한인교회 담임목사 취임식



담임 목사 청빙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장로교회(PCUSA)는 36년의 역사와 자체성전을 소유한 준비된 교회로써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1. PCUSA 교단소속 또는 본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분.
2. 본교단이 인정하는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하신분.
3.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2중언어(한/영) 능통하신분
4. 목회경력 10년이상 이신분.

■ 제출서류

1. 이력서(한/영 각1부) 및 가족사진
2. 목회 소견서
3. 본인, 사모, 가족소개서
4. 최근 6개월내 설교 동영상(CD or DVD)
5. 대학 및 신학대학 졸업 증명서
6. 목사 안수 증명서

마감 : 2013년 5월 31일

우편 제출처 : Eden Presbyterian Church /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문의 : 청빙 위원장 이영배 장로 (daniellee1028@gmail.com)

# “협력하는 교회와 커뮤니티” 주제 6월10일 한인가정상담소 목회자 컨퍼런스 개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협력하는 교회와 커뮤니티’ 주제로 목회자 컨퍼런스를 오는 6월 10일(월) 오전9시부터 오후2시까지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강사 중 한명인 칼스테이트 LA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시연 박사는 “지난 2011년 180여명의 한인교역자들이 참석했던 ‘목회자 컨퍼런스: 건강한 가정세우기’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번에 한인교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컨퍼런스에는 교회와 커뮤니티가 함께 가정폭력 피해 가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협력과 논의를 갖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카니정조 소장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7-80%정도의 이민자들이 크리스천인 것으로 조사가 된바 있다. 가정폭력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



오는 6월10일에 열리는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목회자 세미나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칼스테이트 LA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시연 박사가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게 도움을 청하는 곳이 교회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도움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교회들이 전문기관인 쉼터와 가정상담소 등과 연계하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2년 남가주 지역의 한인단체 최초로 한인 가정폭력 대응 네트워크를 위해 블루윌드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 네트워크의 형성을 기반으로 한인 가정의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와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협력 기관과 함께 하여 한인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 및 개선사항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회자 컨퍼런스는 아태여성센터(APWC), 푸른초장의집, 에스더의집, Blue of California Foundation 등이 함께 하며 사무엘리 박사(클래이몬트 신학대학원 교수), 데보라 소장(아태여성보호센터), 조앤리 변호사(LA법률보조재단), 수잔정 박사(카이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김찬희 박사(클래이몬트신학대학원 은퇴교수), 엄영아 원장(푸른초장의집), 이시연 박사(칼스테이트LA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준기 목사(중현선교교회), 박해영 임상심리상담가(한인가정상담소 LMFT) 등이 강사로 나선다. 등록은 6월 3일까지이며 자세한 것은 찰스류(213)235-4842, 김아림(213)235-4848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아름다운교회에서 열린 리옥 사모 간증집회에서 리옥 사모가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다



제25회 사랑의 마당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북한주체사상은 사이비 종교” 아름다운교회 리옥 사모 초청간증집회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가 주최한 리옥 사모 초청 간증집회가 8일 저녁 7시30분 개최됐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종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에서 리옥 사모는 ‘제가 만난 하나님’(롬 9:1-3)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다.

아코디언 연주로 간증을 시작한 리옥 사모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근무대에서 하사로 7년간 복무를 했으며 저의 가정은 3-40년간 당에 충성했기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당에 헌신하며 살았기에 공산혁명가로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은 가족의 죽음 때문이었다”며, “김일성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배급제도로 인해 배고픔 없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김정일 통치가 시작되면서 배급제도는 사라졌다. 북한에 배급제도가 사라진 것은 재앙의 시작이다. 북한은 철저히 배급제도로 살았기에 스스로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법은 알지 못했다. 그나마 배급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굶어죽는 현장을 목격한 후 당에 헌신했던 가족에 대한 북한지도자들의 배신이라 여겨 탈영하게 됐고 중국에 거주하던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음악학원을 경영하며 살게 됐다”고 밝히며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은 하나의 사이비 종교이다. 김일성은 이미 죽었지만 북한에서는 영생불멸한 존재로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갈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중의 특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종신대에서 기독교음악과를 다닌 리옥 사모는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것이 꿈이라며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했다.

(박준호 기자)

## 제25회 사랑의 마당축제 성황 25개 장애인부서교회와 11단체 참가

제25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25개 장애인부서 교회 및 11개 장애인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2시까지 위더어 내 로우 레크리에이션 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와 해피빌리지(사무국장 김장호)가 공동주관한 이번 축제는 감사한인교회에서 마련한 워킹댄스, 찬양, 다이아몬드바에 위치한 정영인 태권도장의 태권도 시범, 빌리지 크리스천 스쿨의 드럼라인 공연, 아메리

칸아이돌 피니쉬9에 진출한 한희준의 공연 등 다채로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각 교회에서 부스를 마련 식사와 간식 등을 준비해 마당축제가 더욱 풍성하게 준비됐다.

이날 1부 예배는 감사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이정우 목사(감사한인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요9: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노광조 목사(감사한인교회)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 제1회 세계선교교회 여름학교 H.O.P

세계선교교회(담임 최은형 목사)에서 지역을 섬기는 서머스쿨을 개최한다.

세계선교교회의 서머스쿨 H.O.P(House of Potential)은 여름 방학동안 자녀들을 서머스쿨에 보내기 힘든 LA지역 한인 타운 내의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이다. 참가하는 학생들은 학과공부를 배워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오는 6월 10일(월)부터 8월 2일(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총 8주간 열리는 여름학교의 모집대상은 1-8학(2013년도 가

# 서부교계 게시판

### 미주갈멜산 기도원 원로은퇴목사 초청 오찬

미주갈멜산 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은 원로 은퇴목사 초청 오찬행사를 23일(목)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초청인원은 70명이며 본지와 남가주 기독교원로목사회, 남가주 한인목사회가 공동 협찬한다.  
▲문의: (818)306-4912

### OC교협 제3회 사모 브레싱나잇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가 주최하는 제3회 사모 브레싱나잇이 30일(목) 오후 6시 하워드존슨 호텔(222 W. Houston Ave)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빛도 없이 이룸도 없이 목사님을 섬기는 사모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OC지역 사모들로 사전등록 선착순 120명에 한한다. 이메일: qsong405@gmail.com  
▲문의: (714)699-0210, (562)691-0691

### LA기윤실 20주년 기념만찬

LA기윤실(공동대표 허성규, 홍진관)은 설립 20주년 기념만찬 및 축하공연을 18일(토) 오후 5시에 마가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에 기념식 및 기념만찬, 7시에 노래하는 시인 홍순관의 축하공연을 갖는다. 이메일: cem\_la@yahoo.com  
▲문의: (213)387-1207

### 제4차 종교지도자 세미나

LA카운티 정신건강서비스는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5월 3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2까지 LA카운티에서 개최하는 제4차 종교지도자 및 관련된 분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213)738-3446, (213)392-2577

### 새희망선교교회 설립감사예배

뉴라이프커뮤니티처치(New Life Community Church)내 한인들을 위한 새희망선교교회(담임 김중근 목사) 설립감사예배 초청잔치가 19일 오전 11시30분 채플룸(18800 Norwalk Bl. Artista)에서 열린다. 김중근 목사는 그동안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 부목사로 섬겨오던 중 급변에 모든 건물을 다 사용하고 한인들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  
▲문의: (213)703-5726

### 미주장신대 여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여름 및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학사(B.A), 교역학석사(M.Div)와 ESL이며 학사와 석사의 여름 계절학기는 오는 6월10일부터 8월16일까지 가을학기는 8월26일(월)부터 시작된다. 또한 ESL여름학기는 종합반과 단과반으로 나눠 모집한다. 종합반은 문법, 작문, 읽기/토론, 듣기/발표, 어학실 실습, 드라마, 뉴스와 신문으로 배우는 영어 및 회화이며 단과반은 영어회화수료반, 토플준비반, 드라마, 뉴스와 신문으로 배우는 영어 및 회화 등이다.  
▲문의: (562)926-1023



세계선교교회에서 개최하는 썸머스쿨 H.O.O포스터

을학기 기준)이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총 6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전에는 소그룹, 학년별로 영어와 수학 등 학과공부를 하게 되며 오후에는 뮤지컬, 악기연주, 미술, 북클럽, 전통놀이, 요리, 성경공부 등이 개설된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공원, 박물관, 수영장 등으로 필드 트립을 간다. 신청은 17일(금, 오후3-8시), 18일(토, 오전9시-오후3시)이며 이메일(wmchop@gmail.com)로 문의하면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세계선교교회)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 위그노 신앙 답사기(1)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유럽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집회인 유럽목회연구원(원장 한평우 목사) 세미나가 제 20회를 맞아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지도자"(계 2:10)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캄보디아, 필리핀, 터키, 이태리, 불란서, 헝가리, 폴란드, 캐나다 등지에서 95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참석했으며 주 강사는 김영복 목사(의정부 사랑과평화교회)와 최경규 목사(일산 솔레교회)가 담당했고, 박현승 목사(캐나다 토론토서부장교회), 정종현 목사(김천신애병원원장), 그리고 위그노 연구 전문가인 권현익 목사(GMS선교사, 파리)가 특강을 했다.



참석자들은 2박3일간의 세미나 및 선교보고를 마치고 위그노 탐방에 나섰다. 이에 본지 필진 한평우 목사가 16세기 프랑스에서 칼뱅의 사상을 좇아 살았던 위그노의 유적지와 칼뱅의 족적을 찾아보는 "위그노 신앙 답사기"를 수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 누와옹(Noyon)

누와옹(Noyon)은 파리에서 북쪽으로 110 Km 떨어진 곳으로 현재 14,300여명이 거주하는 작은 도시이다. 이곳은 무엇보다도 칼뱅이 출생한 도시로 개신교도들에게는 뜻 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좁차림 산을 구경할 수 없는 프랑스의 넓게 펼쳐진 들판을 달리고 또 달리는 동안 길가에 서있는 나무들에는 사람의 몸이 좋다는 겨우살이가 자랑처럼 달려있다. 세상은 이상해서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는 저토록 많이 달려있고, 간절하게 찾는 우리나라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얼마 전 집회인도차 탑승에 갔는데 담임목사님의 안내로 팔공산을 갔다가 절 주변의 겨우살이를 본 이후 처음 보는 것 같다. 로마의 주변에 흑이나 찾아보았으나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 말이다.

드디어 누와옹에 도착했다. 얼마 전에도 이곳을 방문했지만 이런 곳은 으연 울수록 새로운 느낌이 든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가 태어난 현장이요, 그가 열네 살까지 살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의 출생은 곧 오늘날 개신교의 든든한 초석을 만드는 신호였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학문적인 자질이 있어 누와옹 참사원들은 장차 큰 추기경 감의 인물이 나왔다고 자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 당도하자 반기는 것은 중국집의 빨간 간판이었다. 어디든 파고들어 장사를 하는 중국 사람들의 기지가 새롭게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 늘어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칼뱅이 태어난 집은 1차 대전 때 불에 타 추축돌탄 남겨졌고 그 후 프랑스 개신교 역사학회에서 여러 나라의 개신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그 위에 새롭게 건축했다고 한다. 이 역사 현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독일의 신실한 목회자 부부가 앞장서서 생가 박물관을 관리하는 수고를



칼뱅의 생가 (박물관)

하었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칼뱅이 살아있다면 손사래를 쳤을지도 모르겠다. 불신자가 관리한다고 말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도시 변경 30킬로 내외에 개신교회가 없고, 개신교인 역시 없다고 한다. 그만큼 구교의 영향력이 강력한 이곳에 칼뱅과 같은 개혁자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진다고 말씀하신대로였을까?

5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같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복음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며 감사한 마음을 억

누를 수 없었다.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칼뱅은 아버지가 로마천주교회의 서기였고, 어머니는 부르주아 출신으로 시정사 건립에 깊이 관여하여 큰 공헌을 남겼으며, 그 기록이 아직도 시정사 건물에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아버지 제라르가 참사원과 관련된 일을 하였던 참사원의 목조 건물이 여전히 남아있다. 더구나 성직복을 받아 장학금과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았던 칼뱅이 매년 참사원 회의에 참석해야 했지만 당시 다른 참사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당한 사유를 담은 서류를 제출하여 불참하였다가 아버지 제라르가 참사원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폐직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는데, 후대에 볼섹(Bolsec)과 같은 사람들은 칼뱅이 '동성연애자'의 죄명으로 간혹했다고 악의적으로 말한 왜곡된 역사가 전해 내려오는 성당 부속건물의 감옥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이래라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칼뱅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만 참사원의 갈등으로 사제의 길을 그만뒀다 하며 변호사가 되기 위해 지방 도시로 가서 공부하던 중 개혁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성경을 연구하던 중 학문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법학으로 학위를 받고 병행하여 신학을 공부했다. 그 후 개혁의 길을 걸었다. 개인적으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으나, 계속 도피하는 삶이었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구교에서는 루터나 쾰링거리와 같은 개혁자보다 칼뱅을 훨씬 더 가혹하게 비판하고 그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전하는 것은 칼뱅이 그만큼 로마교회에게 준 상처와 패배감이 컸기 때문이다. 칼뱅으로 인해 오늘날 거대한 개신교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자들은 그만큼 칼뱅의 존재감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날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유감스럽다고 권 목사는 말한다.

아무튼 칼뱅이 유년 시절 다녔을 성당은 유서 깊은 교회였다. 5세기에 세워진 성당으로 1123년경에 현재 교회당으로 개축된 교회로 굉장히 큰 성당의 모습이다. 놀라운 것은 칼뱅이 태어난 집 옆길에 지금도 칼뱅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다.

칼뱅의 집터에 세워진 집은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층에 있는 칼뱅의 상반신을 그린 큰 그림의 특징은 모자를 썼고 오른 쪽 집자를 하늘로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의 삶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칼뱅의 삶의 모토였다. 그래서 그의 무덤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정확한 장소를 모르고 있지 않은가!

(계속)

# 세계 종교문화 뉴스

##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 캄보디아 이민국 경찰 선교사 비자체크

캄보디아의 일부 현지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선교사 배척운동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국 경찰들이 외국선교사들의 비자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부분 선교사들이 비즈니스 비자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들이 "워크퍼미션"(노동허가)없이 비즈니스 비자로 일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이를 단속하게 된 것이다.

캄보디아장로교신학교에서 1년간 단기로 영어를 가르치는 단기 선교사도 수업 중, 4명의 이민국 경찰로부터 심문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학장은 이미 두 달 전 비자와 여권을 복사해두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동남아국가들이 대동소이하다. 태국만 여유가 있다. 선교하고 있는 나라의 정치와 사회가 불안해지면 대체로 선교사 비자를 강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 불안한 동남아-다음은 동남아 차례?

왜 동남아국가들이 선교사 비자 통제에 강화하는가? 정치적으로 과거 동남아 불교국가들은 공산주의를 경험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로서는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란 국가가 공동으로 생산과 분배를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시행하는 것은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정치와 행정을 공산주의적으로 통제와 규제와 감시가 그대로 남아있다. 일당제이거나 야당은 반대소리를 낼 수 없다.



동남아 왕정국가들은 공화제든 왕정제든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은 '군부'다. 이들은 권력의 정동성이 없거나 교육이 약하거나 서민 출신들이었다. 공산주의 장실 멤버인 호치민, 중국의 모택동, 등소평, 장쩌민 등은 프랑스에서 유학한 소위 "해외 몰"을 먹은 자들이다. 그러나 현 동남아 실세들은 그렇지 않다. 미얀마나 일부 국가들은 은근히 우민정체를 시행한다. 캄보디아는 장군들이 대학 세위 돈을 벌는 자들도 있다. 토지 분배를 하면서 "힘센 장군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며 군인들은 농사에 동원된다. 베트남은 대학 못가는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데, 주로 국가 농장에서 일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동성을 상실한 군부정치는 감시, 억압, 외부세력 차단에 열중한다. 특히 부정부패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청년들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다. 캄보디아 인터넷을 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이 오래가면 "아랍 스프링"이 동남아에서 일어날 차례라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동성을 상실한 군부정치는 감시, 억압, 외부세력 차단에 열중한다. 특히 부정부패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청년들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다. 캄보디아 인터넷을 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이 오래가면 "아랍 스프링"이 동남아에서 일어날 차례라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캄보디아 야당지도자 한국방문 근로자 철수 논의

얼마 전 캄보디아 야당지도자가 한국에 전경이 곧 나는데도 훈센 정부가 한국의 캄보디아 근로자 철수계획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을 방문, 캄보디아 근로자 철수계획을 논의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훈센이 노동부를 통해 노동부장관도 한국을 방문했다.

캄보디아는 금년 7월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수상은 국회의 임명한다. 훈센은 다시 집권을 공언하면서 만약 야당(캄보디아인민당)이 다수가 안 되면 우리가 그냥 물러갈 줄 아느냐며 협박적인 연설을 했다고 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약 2만 명 가량의 캄보디아근로자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다.

훈센은 1979년 베트남 정부군 10만명을 캄보디아로 끌고 들어와서 과거 자신의 상관이었던 폴포트로 산으로 몰아내고 28세에 외무부장관이 됐고 36세이던 85년에는 수상이 됐다. 사실상 훈센이 79년부터 캄보디아를 통치한 셈이다.

(14 면으로 계속)

<b>세계로번역가는 교회</b> <b>서부(CA)교회안내</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시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ingvi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시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ingvi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413-1600, (F) (213)383-2604 3119 West 8th St., LA, CA 90020 Tel: (213)383-2600, www.laopendoor.org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서부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32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성경연구: 오전 5:30 동요예배: 오전 6:30 EM 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주둔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Alsoldrock@gmail.com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목요예배: 오후 7:00 수-금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8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HOLYWAY: 영어예배) (KOC: 한국어예배)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0 Tel: (310)772-7777, Fax: (310)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동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pc.org	<b>등문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b>동양선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3부 평일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323)468-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우리의 동역자를 위한 선교의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학) 팩스: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HB, LA., CA 90033	<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6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비전축 18세기도회: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626)980-9800, Fax: (626)980-4044 501 S. Lido St., La Brea, CA 90631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18)363-5887, Fax: (818)368-8883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 평안교회</b>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ijoo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학교: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www.laa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오전 6:30(토)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Rd., La Habra, CA 90631	<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b>새생명선교회</b>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부: 오후 7: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주일) 중, 고, 대: 오전 11:00(주일) Tel: (818)92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b>세계비전교회</b> 담임목사: 김영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00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 금) Tel: (213)749-5587, Fax: (818)368-8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b>세계사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745-9191(CH), 사해(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ac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b>얼마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모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2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213)384-4090 301 S. Kingsley Dr., 2F-2B L.A., CA 90020	<b>윌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찬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Tel: (714)445-6200, Fax: (714)445-6207 3435 Wilshire Blvd., #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목요성경인양예배: 365일 24시간 온/오프 www.gracemc.com Tel: (714)445-6200, Fax: (714)445-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이춘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www.gpc.com Tel: (909)388-2948,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b>코너스톤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ch.com / e-mail: pastor@cornestonch.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주요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찬양) 장모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encecc.org Tel: 310-570-5500, Fax: 310-5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신로 펴기 탄자니아

**샬롬**  
주안에서 평안을 기원하며 도도마 선교지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기가 시작되어 비가 내리기를 시작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내리지 않아 더러는 옥수수가 열매를 맺기를 시작했지만 어떤 곳은 한 없이 넓은 들판에 심겨진 옥수수들이 자라다 멈추고 말라버린 옥수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가는 버스 뒤에-OH LORD! GIVE US DAILY BREAD-라는 글을 달고 손살같이 달려가는 버스와 가뭄에 메말라 버린 들판을 보고 있노라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올해도 옥수수를 먹고 옥수수를 팔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인 것을 알지만 그나마 옥수수가 열리지 않은 메마른 들판은 그들의 삶조차 다 말라 버리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땅에 믿음의 생활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마저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함이 간절합니다.

**교회건축 마무리**  
주안에서 감사한 것은 홍보로마쿠루교회가 건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써 왔던 교회건축이 끝난 것입니다. 건축을 위한 선교현금과 땅 풀린 현지 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6천여 장이 넘는 작은 흙벽돌들을 만들기 위해 멀리서 물을 길러오고 그 만든 흙벽돌을 굽기 위해 하루 길 되는 먼 곳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 불을 지펴 흙벽돌을 굽고 그 구운 붉은 벽돌 하나하나가 만들어 지기까지 수고한 홍보로마쿠루교회의 교인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에 건축을 위하여 헌금하신 사랑의 손길이 더하여져서 교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땀 흘려 만든 벽돌 한장 한장에는 본인들의 수고와 삶, 헌신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홍보로마쿠루교회가 더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지난 미국에서 5개월간의 쉼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컨테이너를 이제야 달라살렘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찾은 과정에서 몇 번이나 달라살렘을 오가며 전쟁 하듯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받고 보니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책상, 의자, 소품, 비품 등 이곳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컨테이너 안에 가득 차 있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신학교강의와 세미나를 할 때 제대로 된 칠판이 없어서 그렇게 아쉬워했는데 이젠 정말 좋은 칠판이 들어왔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앉아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많은 화장실과 식당 건물로 인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학교가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들이 많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역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더러는 농사일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매달리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선교사가 되게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여러 동역자분들께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1:11).

OH! LORD, GIVE US DAILY BREAD.  
탄자니아 도도마에서  
황광인 영숙 선교사 드림  
이메일:

## (13면에서 계속) 갈등이 고조되는 말레이시아

지난 5일 말레이시아는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 역시 연립정부의 여당 집권연합국민전선(BN)이 222석 중 133석을 승리하였다. 56년 독립이후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아 안와르 이브라함의 야당에게 가능성이 있는 선거라고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패배였다. 안와르는 선관위와 국민전선이 선거 부정을 공모했다고 비난하며 데모를 시도하고 있으며 인구 1/4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계와 다른 야당들도 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있다.

수상으로 재임된 나지브 라작은 “중국인 쓰나미”로 고전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말레이시아들의 반대 쓰나미”로 이를 반박하였다. 이번 선거로 말레이시아는 종교간 갈등, 도시와 농촌간 갈등, 인종간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우려한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라작 정권이 수명이 길지를 두고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싱가포르 신문 9일지는 야당 데모에 많은 대중들이 호응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말레이시아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알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알라’는 아랍어로 하나님 혹은 신을 의미한다. 이슬람교 국가의 기독교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한다.

### 선거로 불안한 필리핀

필리핀도 선거철이다. 필리핀은 여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는 9천2백만 명을 넘는다.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민다나오는 인구 2천1백만 명으로 가난한 편이며 이슬람교도가 매우 많다. 또 이 섬에는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이슬람교 반군세력(MILF-Moro Islam Liberation Front)이 독립을 부르짖고 있어 많은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과격이슬람주의자들의 무서운 데모: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는 신성모독을 둘러싸고 거칠게 항의의 데모를 하고 있는 과격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들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다. 최근 의류공장 붕괴로 사망자가 무려 1,000명을 넘고 부상자도 엄청나다. 여기에 이슬람교 과격주의



자들의 과격한 데모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다.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종교문제 인도에서 분리 독립한 나라들이다. 이슬람 국가로 독립하기 위하여 힌두교 인도로부터 독립한 것이다. 사실 이 세 나라는 종교문제도 분단된 국가들이다. 특히 신성모독죄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데모의 단골메뉴이다. 코란을 찢거나 이슬람을 모욕하면 신성모독죄가 성립된다.

사진: AP(왼쪽), CNN(오른쪽)

### 피로 물든 파키스탄 선거

파키스탄 역시 선거 전후에 테러, 살인, 방화 등 무서운 사건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기독교 신자들은 계속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슬람교 국가인 파키스탄의 라호레(Lahore)시 기독교 마을 요셉 콜로니(Joseph Colony)가 이슬람교 광신도들의 습격을 받고 폐허가 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얼마 전 파키스탄 라호레 고등법원은 그 마을을 습격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피의자 35명에 대한 보석신청을 승인했다. 당시 기독교 마을을 습격한 이슬람교도들은 약 2,000명가량으로 예상되는데,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를



모욕했기 때문에 보복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파괴된 가옥 178채와 불탄 기독교 예배당 2채를 재건해야 했다.  
사진설명: 회교도들의 습격으로 폐허가 된 파키스탄의 기독교 마을(UCA News)

### 9.11사태 이후 미국의 고문실태

미국의 정치적 중립 싱크탱크 기관인 Constitution Project는 얼마 전 580쪽 가까운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주 내용은 9.11사태 이후 미국의 수감자 대우현황 및 고문사례이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수감자 대우 현황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그 때부터 이 싱크탱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부정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오바마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 보스턴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 이란에 많은 가짜 메시아 등장

5월초 발행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란이 수십명에 달하는 이슬람교 가짜 메시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현재까지 이란 형무소는 35명의 가짜 메시아를 구속, 구금한 상태다. 시아파의 종말관은 12번째 이맘이 이슬람교 천당 7층에 있으며, 그가 세상에 내려오면 그것이 종말이라고 믿는다.

[용어문제] 이슬람인가? 이슬람교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용어는 ‘이슬람’이



아닌 ‘이슬람교’이다.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이란 용어를 강조하는 것은 오직 이슬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라는 표현은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은 ‘이슬람교’라는 표현을 싫어한다. 우리도 가급적이면 이슬람교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본의 경우, 항상 이슬람교라고 표현하며 무슬림 대신 이슬람교도로 말한다. 무슬림이란 용어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식 용어이다

**아직도 스펙에 올인하고 있는가  
그대, 스펙을 넘어 스토리 감동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스토리의 강력하고 신비한 매력!  
이 책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는지 영적 원리와 해법을 알 수 있다.



315면 / 12,000원

#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소강석

이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목회자, 소강석목사가 들려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위대한 스토리의 세계!  
비천한 노예와 강간 미수범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애굽 총리에 오른  
요셉의 생애에 은닉된 스토리의 베일이 벗겨진다.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도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 성소권 352면 / 12,000원
- 거룩한 전쟁 531면 / 18,000원
- 십자가를 체험하라 320면 / 12,000원
- 생명나무 503면 / 16,000원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34)

### 4.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전통전수교육 마지막으로 “열심과 열정의 기도”라는 우리 민족의 신앙적 전통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과 열정의 기도”라는 우리의 전통은 미국뿐 아니라 그 어떤 민족의 신앙공동체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는 이미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한국교회의 특성으로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으로 회자되어왔으며 힘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선교사님들의 열정어린 사역에 힘입어 다른 민족공동체들도 행하고 있으니까요(그리고 마땅히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나라 교회들에게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아 수백 명에 이르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여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 당회에 정식하기를 얻어 공식적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새벽기도의 전통은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인교회들의 신앙실천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수나 빈도와 상관없이 많은 한인 교인들이 새벽제단 쌓기를 사모하며, 특히나 힘들고 지친 이민의 삶 가운데서 위로 및 응답의 은혜와 새 힘을 주는 영적인 파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또한 한인교회들만의 새벽기도 “후” “커피타임”을 통해, 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교제의 시간도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의 기쁨이 되고 있지요). 힘들고 지친 육신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으켜 세워 새벽기도

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며, “쿨”한 것을 선호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열정적인 기도의 전통이 외견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새벽기도(회) 및 열정적인 기도의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실행하는 일이—이 일이 참으로 좋고 가치 있는 일이라 확신하더라도—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인 어른들과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더욱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보기에 거부감이 들고 먹여볼 경험 없어서 먹지 않으려 하는, 그러나 그 아기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음식들을 엄마들이 아기들에게 먹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혜를 짜내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듯이 말입니다.

### 새벽기도 전통 다양하고 효과적 레시피로 참여 유도 신앙기준으로 삼거나 제도화하는 인상 주면 역효과

있도록 해야겠지요. 하지만 애초에 “열심과 열정의 기도”라는 자선이 한국기독교의 전통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전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새벽기도가 아닌가 합니다(물론 통성기도, 철야기도회 등도 있지만 오늘은 새벽기도 전통에 집중하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들, 불교인들 중에도 새벽에 기도나 명상을 하는 개인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일상적으로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예는 지구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전통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길선주 목사님이 주도한 회합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벽회합은 1906년 가을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님의 주도로 평양 장대교회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는 1907년 평양에서 출발한 한국기독교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당시 조국의 일제강점으로 인해 민족과 국가가 심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한 상황을 탄식, 예수님의 본을 따라(막1:35) 새벽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였는데, 많은 교인들이 길 목사님에게 호응하여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로 모이고 이를 통해 하루를 그리스도와 좀 더 가까이 교제하는 것으로 출발하며 보다 더 헌신된 기독교인의 삶을 다짐하는 열정을 기우며 깊은 영적인 체험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새벽기도로 대표되는 열정과 열심의 기도라는 민족의 신앙전통은 그들의 영적성숙을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수해야 하는 귀중한 자산이며, 이에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인 어른들과 사역자들이 새벽기도 및 열심과 열정의 기도에 대해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체험 또한 미약해 새벽기도(회) 및 열정적인 기도의 전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성숙에 대한 체험 또한 미미합니다. 사실 우리 한인 자녀들도 인지적으로 새벽기도(회) 및 열정적인 기도의 전통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그 실천 가치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과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주입당하며 매일 이른 아침 학교에 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매일 새벽제단을 쌓도록 하는 것에 무리

일레를 들어, 일단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리즈로 구상해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다짐하는 열정을 기우며 깊은 영적인 체험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새벽기도로 대표되는 열정과 열심의 기도라는 민족의 신앙전통은 그들의 영적성숙을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수해야 하는 귀중한 자산이며, 이에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인 어른들과 사역자들이 새벽기도 및 열심과 열정의 기도에 대해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체험 또한 미약해 새벽기도(회) 및 열정적인 기도의 전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성숙에 대한 체험 또한 미미합니다. 사실 우리 한인 자녀들도 인지적으로 새벽기도(회) 및 열정적인 기도의 전통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그 실천 가치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과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주입당하며 매일 이른 아침 학교에 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매일 새벽제단을 쌓도록 하는 것에 무리

(계속)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 월 장자권(신21:15-23) 찬288장

두 아내를 둔 남편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하여 장자권 순서를 바꾸지 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전통까지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인 것입니다(17). 이 말씀은 일부다처주의를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원리인 일부일처주의를 따

르는 우리들은 먼저 이스라엘의 특수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의를 무시함으로 근경을 당한 야곱처럼 편애주의로 나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일에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 화 미리암을 기억하라(신24:1-9) 찬506장

민수가 12장에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다가 징계를 받은 미리암이 7일간 문둥병에 걸려진 밖에서 두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여 교훈을 삼으라 하십니다. 첫째, 말쑥권위에 대한 도전의 죄가 얼마나 나쁜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사로서 판단하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교만에

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징계를 통해 의가 세워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간증으로 두는 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7일간 기간을 두셨습니까. 징계의 고난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회복은 공평과 의가 서로 입 맞추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 수 공의의 도(신24:10-22) 찬475장

신령한 도를 사모하는 자는 공의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세 방면에 공의의 도를 걷기 원하십니다. 첫째 경우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전집물을 취하더라도 자기가 집에 들어가 취하지 말라 하심으로서 소자를 이용한 탐욕을 채우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도움 받은 소자가 진정 복을 빌게 하는 의로운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10-13). 둘째, 빈한한 품꾼의 학대를

금하고 품삯을 당일에 주어 그의 부족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죄를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14-15). 마지막으로 과부, 고아, 객들을 위해 곡식이나 과실을 남겨두는 배려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이럴 때 범사에 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19).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소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공의의 길을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성령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 목 책임의 도(신25:1-10) 찬519장

신령한 길은 성령의 길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회개도 책임감으로 시작하고 십자가지는 생활도 책임감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세 방면에 책임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사상에 하나 강한 체벌만 허락하심으로서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 공훈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곡식 따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심으로 힘들면 먹을 자유를 주는 최소한의 자

비를 베푸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형이 죽은 후 형수를 아내로 삼게 하여 형제의 집(가업)을 세울 책임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복음시대에 이런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후에 흐르는 형제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책임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됩시다.

### 금 공평과 긍휼의 도(신25:11-19) 찬343장

하나님은 공평과 긍휼의 도를 걷기에 관해 세 경우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11-12)는 남편을 지킬 때 상대의 약점을 볼 때 여인의 손을 짚어 버리게 하셨습니다. 소자의 약점을 들어 무자비하게 짓밟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결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아말렉의 무자비한 공격

을 하나님은 주복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용납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셋째와 긍휼의 길에 성도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자비는 공평한 지위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금하셨습니다(13-16).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평과 긍휼이 입 맞추는 삶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조화를 이룬 길을 우리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 토 헌신의 길(신26:1-11)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헌신이 성도의 길임을 말씀하시며 요호와께 드리라(2, 10)는 명령을 지킴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택한 곳에 가지고 와 드리면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경배하며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기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소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말씀, 초태생을 드림으로 헌신

을 철저히 배우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험사리 유혹에 빠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게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 육체, 재능, 물질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복됩니다(골12:1-2). 이곳에 복의 원천이신 성령영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해외 교회</b>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서문동 870-10호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n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3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야기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흥동 1670-1	<b>로마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로마관) VIA DEI QUINTILI 92-38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장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8,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용인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8553-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성주동 221-4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173-26호	<b>수영로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6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후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송죽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3181-3, (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도산동 49-45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3기 2층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 강원도 양양시 양양동 415 www.yangok.or.kr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9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00 금요야기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중랑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	<b>청주주요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b>브라질 서교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13 Lder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사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84-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주일3부예배: 저녁 9:00 주일4부예배: 저녁 10:30 주일5부예배: 저녁 11: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 우리의 땅 베를레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2)



유경옥 전도사 (화가,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 A. 베를레헴 지역

### A-2 예수님 탄생교회(The Church of Nativity)

밀과 특히 보리가 많은 곡창지역을 대변하듯 베를레헴은 히브리어의 집이란 의미의 '베에트'와 '빵'이라는 의미의 '레헴'의 합성어로서 떡이나 빵을 만드는 집(오늘날의 상업적인 제과점, 빵집과는 다른 의미이며 오히려 방앗간, 곡간의 개념에 가깝다)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 알려져 있다.

순례단은 팔레스타인지역으로 들어오며 오른쪽 벽 너머 라헬의 무덤을 지나면서 관광관례를 따라 간단한 검문을 치르고 순조롭게 들어왔으나 일반 관광객이 승용차 등을 타고 개인으로 왔을 경우는 짐을 일일이 조사하느라 5시간에서 7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어느 선교사의 경험담을 들었다.

우리는 버스를 큰 주차건물을 가진 상가에 둔 채 오래된 돌길을 걸어 올라와 예수님께서 미가의 예언대로(미5:2)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야로 700년 후 실제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탄생교회를 향해 걸어들었다. 길가에는 모슬렘풍의 가내수공업 제품과 가톨릭 소품, 유대교 쿿타 등의 종교적 관광 상품들이 즐비했다.

이곳의 주민들은 오늘날의 목공예 익숙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전형적인 모슬렘의 검은 차드를 쓴 할머니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니 새삼 이국에 와있음을 느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보는 사람들은 성지순례 관광

객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떡'으로 베를레헴의 이름과도 겹맞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보는 순간 웅장한 성체에 문화재적 감동이 한편으로 느껴지면서도 1998년 당시 성지순례에 대한 환상이 깨져서 실망하던 학우가 생각났다.

성지순례라는 것이 그렇듯, 이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아기로 태어나실 때의 성경 속 상황과는 전혀 다른 거대한 비잔틴시대 건축양식물이 세워져있고 그 안에 예수님



목자들의 들판교회 벽화

의 마구간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 하니 생경감이 들 수 있다.

캐톨릭이나 그리스정교회나 아르메니아교회가 성(聖)지인지 상(商)지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순례객들과 섞여 복잡하게 돌아가 신비감이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또한 지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 예수님이 사셨던 것이 사실이었음을 믿는 한 원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땅만 밟아

도 마냥 감격과 감사가 생기는 곳이 아니던가. 그래서 다시 오고 또 오는 곳이 이스라엘이라. 현실의 안타까움을 알면서도 은혜를 놓치지 않는 마음가지이 성지순례에서 필요하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노라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정황이 되살아나 성지순례의 원래의 의미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과 동행해보는 경험을 되찾을 수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성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든지, 사명을 고취 받고 갈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다만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서 개혁주의 연합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최대한 성경속의 당시 상황을 재현해놓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할 숙제를 느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교회는 성 안에 있고(Castle Church) 원래 이 성은 AD 135년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 박해 정적의 일환으로 아도니스 신전을 세웠던 것인데, 4세기경 콘스탄틴과 그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 부서진 후 다시 세워진 것이다.

그 탄생교회 성체는 6세기 경 사마리아인의 반란으로 파괴된 후 현재는 AD 530년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개조된 것이 남아있다. 그 후에도 이 땅의 정복자가 여러 번 바뀌어도 이 성은 남아있어 신기함을 더욱 금할 수 없다.

회교도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작고 좁게 해놓았다는 설과 '겸손의 문'이라고 하여 아기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오라는 뜻이 있다는 설이 있다. 자세히 보면 문 왼쪽의 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나무

문은 아르메니아 왕 헤르메에 의해 1272년에 세워진 것이다.

7세기에 페르시아가 침공해왔을 때도 파괴되지 않은 것은 당시 교회 정면에 있었던 아기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 복장을 묘사한 모자이크화 때문이었다고 한다.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쓰이던 동굴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엔 '구유교회'라 하여 그리스정교회의 예식 때 쓰이는 기도의 향기를 의미하는 훈향을 위해 향로 등이 많이 달려 있다. 같은 장소지만 캐톨릭 소유

깃털 펜을 들고 성경을 필사하는 모습의 스탠드글라스 창이 있었다. 교회 안에는 다윗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곳도 있었다.

중간 중간에 그로토(기도시간)라 하여 들여보내지 않아 다 볼 수는 없었다.

율리우스달력과 조지안달력을 쓰는 관계로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예수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고 그리스정교회는 1월 7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곳에서 각각 그들의 예배만 생중계를 한

행이 짝오라기 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니 주객이 전도된듯해 더욱 그랬다.

### A-3 목자들의 들판(The Shepherd's Field)

이 '목자들의 들판'에는 동굴과 교회가 따로 있다. 사진은 당시 목자들이 머물러 쉬면서 불도 피우고 몸을 녹였다는 천장이 낮은 동굴로서 양우리를 겸하는 곳이다. 라임스톤에 관광객의 호흡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와 천장이 까맣게 됐다고 한다.

동그랗고 작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벽화가 동그런 벽을 따라 그려져 있었다.

사진은 아기 예수님이 목자와 동방박사의 축하와 경배를 받는 장면이다. 성경에는(마2:11)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영드려 아기를 경배하고..."라고 되어있는데 예수님이 신생아라 어머니 품에 안겨있거나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리아와 아기를 경배하고'가 아니라 '아기를 경배하고'라고 되어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메시아)을 찾아온 것이지 마리아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처럼 예쁘고 소박한 목자들의 들판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어떤 이는 이국만리 미국에서 온 동방박사라도 된 양, 어떤 이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달려온 목동이라도 된 양, 털썩 주저앉았다.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나 하나님과 아기 예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으니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그 어리신 예수님/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쉬실 자리 없어 귀하고 아름다우신 몸이 구유에 있네/늘에 못별들이 반짝거리며 다 명량한데/그 갓난 예수님 풀 위에서 싸근 싸근.

이메일: sookokart@gmail.com (다음호에 계속)



예수탄생교회

인 바닥엔 은으로 된 14개의 별빛 크라운 모양이 있고 가운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점을 의미하여 동글게 파여 있으며 구멍 가장자리 동근 돌레를 따라 라틴어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1998년에는 보았지만 그것을 보려면 많은 줄을 서야 해서 이번엔 일행 모두 가지 못했다.

순례단은 제품이 성경 70인역을 과부 파올라의 후원을 받아 라틴어로 번역하던 방을 들어가기 위해 동굴로 내려갔으나 캐톨릭 신자들이 이미 쇠창살문을 닫고 미사를 하고 있었다. 어디를 가나 그들의 미사는 끊이지 않았다. 그들의 성지순례 개념은 성지에서의 예배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관광객들은 그 사이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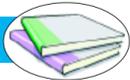
쇠창살 문 사이로 들여다보니 벽에는 천사가 계시를 하고 제물이

다. 또한 구유교회 옆에 있는 성 캐더린교회는 1881년 캐톨릭에서 교회를 세워 매년 24일 자정을 기해 예루살렘 대주교가 집례를 하는 성탄절 예배를 전 세계에 방영하는 것이 관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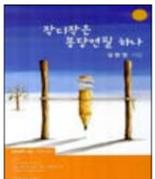
피렌체의 산마르코 수도원에 있는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나,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시모네 말티니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와 같은 명화에서 마리아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뒷배경도 호화스러운 것은 고딕시대부터 마리아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이지만 실제를 상상하면 "인자는 머리 돌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신생아 시절을 떠올릴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을 어찌하랴.

나를 위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 비하의 시작이니 감사하면서도 슬펐다. 제단에는 마리아 혼자 입상으로 조명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발밑에는 예수님 인

## 새 책 소개



### "작디작은 몽당연필 하나"



저자 김현정 사모

-여기서 멈출 수 없다/내가 어떻게 가꾸고 있는 열매들인데/이것을 포기하면 말인가//아팠던 학창시절을/위로받으려는/하나님의 선물인데//4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비로소 익어가고 있는 열매들/이슬을 밟고 나가 석양을 등지고 돌아오는/성실한 농부가 되어/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나누고 싶다.

시인 김현정 사모의 두 번째 시집 "작디작은 몽당연필 하나"

에 수록된 서시 '시의 발에서'이다. 짧은 쇠귀 속에 김현정 시인의 아픔과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의 삶의 모

### "함께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에 이어 2번째 시집

습이 담겨져 있다. 문인귀 시인은 "김 시인은 남다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 그 힘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파고들

어 거기서 찾았던 가치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김현정 시인은 서울에서 태

어났다. 한 살이 되던 해 소아마비를 앓아 불편한 몸이 됐지만 좌절하지 않고 성장해 시각장애자인 정화영 선교사를 만나

결혼, 미국으로 이민 왔다. 그가 시를 쓰게 된 것은 8년 전, 문인귀 시인을 만나 창작 지도를 받으면서 시인으로 출발

했고 첫 시집 "함께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를 펴냈다. 두 번째 시집인 본서는 묶음 1 역광에 비친 얼굴, 묶음 2 쓰

고 싶은 일기, 묶음 3 연꽃무리, 묶음 4 행복, 묶음 5 팔레타로 나눠 100여 편의 시를 담았다.

또한 문인귀 시인이 발문을, 평론가이며 시인 홍문표 씨가 해설을 맡았다. 김현정 시인은 이 시집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되기 바라며 수익금은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책 구입: (714) 690-0333 (이성자 기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편 39:7)

“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알라바마 순복음 교회 ”

# 새성전 입당 예배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기이한 일과 역사로 11에이크 위에 아름다운 교회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입당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초대하오니 부디 오셔서 함께 영광을 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입당일시: 2013년 6월 2일(주일) 오후 4시

● 장 소: 알라바마 순복음교회

3331 Rucker Blvd, Enterprise AL 36330

전화(334)347-1675, (334)475-9933(CP)



담임 김진규 목사

알라바마 순복음 교회 Alabama Full Gospel Church

담임 김진규 목사 외 교우일동